



바른답·알찬풀이

고등 독서



I. 독서의 본질

01 독서의 준비

독서에 대하여

· 헤르만 헤세 ·



내용 확인하기

9~11쪽

1 ③ 2 ⑤ 3 ④ 4 ② 5 ⑤ 6 ⑤ 7 ① 8 ① 9

독서는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 글쓴이는 보통 사람을 대표하는 뮐러 씨와 마이어 씨의 독서 행태가 주체성 없는, 주먹구구식의 독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채권 한 장을 사고파는 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는 것처럼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독서를 할 때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 주체적으로 책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마이어 씨는 독서에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즉, 독서를 과소평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가 독서를 고상한 행위로 받아들이는다고 보기 어렵다. 독서를 고상한 행위로 여기는 인물은 뮐러 씨이다.
- ㉠은 어떤 일에 주체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행위의 당위성을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독서의 자세에 적용하면, 스스로 독서의 이유를 찾을 줄 아는 모습이 가장 유사하다.
- 남독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행위로, 뮐러 씨와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글쓴이는 (바)에서 뮐러 씨와 마이어 씨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이를 잘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남독’하는 사람들도 책에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글쓴이는 너무 많이 읽는 행위, 감동이 없으면서도 독서에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치는 행위를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책을 무작위로 선택해 읽는 행위는 글쓴이의 관점에서 ‘불량 독자’에 해당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잘못된 독서의 원인이 신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글쓴이는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러가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체적 의지를 갖추고, 주의를 집중하여 독서에 임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8 글쓴이는 독서를 할 때 ‘험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의 마음가짐’,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알맞은 표현은 ‘신중’, ‘결연’ 등이다.

오답 풀이

②~⑤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독서 태도이다.

9 글쓴이는 ㉠에서 독서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어 잡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독서는 독서 주체(나)의 삶에 이바지하고, 독서 주체의 삶에 소용될 만한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13~15쪽

1 ② 서술형은 이렇게 독서를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시간을 때울 심심풀이라며 경멸하는 것이다. 2 ⑤ 3 ③ 4 ② 5 ④ 6 ⑤ 7 많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읽기 8 ① 9 ① 10 ③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질, 몰두, 삶 [2단계] 적게, 독자 [3단계] 사람들이 책을 적게 읽어 작가들이 작품을 적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몰두하여 삶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독서를 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독서에 대한 생각을 쓴 글로, 교양을 쌓기 위해 다양한 독서를 하는 뮐러 씨와 무료해서 책을 읽는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를 예로 들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곧 독서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 이 글에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독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알고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교양을 쌓기 위해 독서를 하는 사람들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 정확히 모른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뮐러 씨나 마이어 씨 모두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책을 읽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4 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시간이 많고 하루가 길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의미의 문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⑥에는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는 뜻의 ‘무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무난하다’는 별로 어려움이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5 (가)의 “독서를 이처럼 ~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에서, 사람들이 다른 일에 비해 독서에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치는 이유가 책 속에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6 (마)에서 “이런 잘못된 독서가 ~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신문 때문에 잘못된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글쓴이 자신의 체험을 활용하여 잘못된 독서의 위험성을 설명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7 (가)의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를 통해, 글쓴이가 남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온갖 좋은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는 것’은 ‘많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읽는 것’을 비유함을 파악할 수 있다.

8 ‘전력투구’는 ‘어떤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임.’의 뜻을 지니므로 무슨 일을 하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 가장 부합하는 한자 성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③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④ 절차타마(切磋琢磨):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⑤ 일취월장(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9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 안 될 것이다.”에서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독서를 해야 함을, “알프스를 오르는 ~ 가져야 할 것이다.”에서는 신중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갖추고 독서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중심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독서 태도’가 가장 적절하다.

10 (가)에서는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하면 더 풍성한 힘을 얻거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독서의 이점을 얻을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독서를 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음을 추론할 수 있다.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글쓴이가 독서의 올바른 태도로 독서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 몰두하는 태도, 굳은 의지로 읽는 태도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의 두 문장은, 독자들이 올바른 태도로 양질의 독서를 한다면 작가들이 열 배쯤 적게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독서의 질 중시, 몰두하는 태도, 굳은 의지로 읽는 태도 등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고, ㉠의 앞 문장과 관련하여 작가들이 적게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5점
글쓴이가 바라는 독서 태도를 두 가지 이상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의 앞 문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3점
글쓴이가 바라는 독서 태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답안의 내용에서 ‘양질의 독서를 해야 한다.’가 핵심이므로 반드시 서술해야 하고, 다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 몰두함.’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02 주제 통합적 읽기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내용 확인하기

17~20쪽

1 ⑤ 2 ② 3 ① 4 ③ 5 ② 6 ④ 7 현대 사회의 결혼 과정에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 ‘완전한 우리’를 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인물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와 같은 과장을 통해 상대에 대한 그리움, 즉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초조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2 김 진사와 윤영은 상대를 몹시 그리워하면서도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둘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성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윤영은 김 진사에 대한 연모의 정만 드러낼 뿐 때가 늦어 김 진사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만시지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다)에서,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나’가 만나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이란 ‘불완전한 나’, 즉 흠이 있는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 5 이 글에는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 주며,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이 지닌 부정적 요소는 제시되지 않았다.
- 6 용맹한 기사 이야기에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용맹한 기사는 낭만적 사랑을 실행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 즉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는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면서 나타났다고 하였으므로, 공주를 구해 내는 용맹한 기사는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한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7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나’들이 만나 ‘완전한 우리’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결혼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서로 달라 예전에 비해 ‘완전한 우리’가 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결혼은 ‘낭만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8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결혼 제도와 관련해, 과거의 낭만적 사랑과 달라진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결혼 제도가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신경 과학자들은 감정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랑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감정을 표정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0 이 글은 ‘사랑’에 대한 영어 사전의 정의, 즉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에 대해 신경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사전에 수록된 정의는 ‘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과학자들이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바)에서, 신경 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로 인해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신경 과학자들은 사랑과 다른 심리 상태 모두 뇌의 화학 물질에 의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글쓴이는 (마)에서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고 하였으므로, 욕구나 동기는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욕구와 동기는 감정의 영역이라는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헬렌 피셔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자기 공명 영상기[MRI]를 활용해 ①의 실험을 하였다. 즉, 상대방의 사진을 보는 행위(사랑)가 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제하여 실험을 설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22~25쪽

1 ① 2 ② 3 ① 4 감정 이입, 김 진사를 볼 수 없어 외로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5 ① 6 ① 서술형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7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8 ④ 9 ④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화학 물질 [2단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잠, 식욕 [3단계] 사랑에 빠지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늘어나므로 볼면, 식욕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1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 주시어”, “편지를 미처 열어 보기도 전에” 등을 통해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답글임을 알 수 있고,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

다면”, “꿈속에서 비었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등에서 남녀 간의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 주시어”로 보아 김 진사가 읽고 있는 편지는 윤영이 보낸 것이다. “한 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낮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를 통해 짐작해 보면,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는 윤영에 대한 연정과 그리움이 마음에 사무쳐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 진사가 윤영을 사랑하게 되어 상사병에 걸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③ 암중모색(暗中摸索):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를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④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 ⑤ 애이불비(哀而不悲): 1.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2. 슬프기는 하나 비참하지는 아니함.

4 ‘외로운 구름’은 김 진사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만날 수 없어 외로움에 지친 윤영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5 ①~③은 모두 윤영이 김 진사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의미하지만, ④는 전생에 있었을 법한 김 진사와의 인연을 의미한다.

6 이 글은 고대 로마부터 중세 시대, 17세기 전과 그 후의 근대 부르주아 사회를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 양상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있다.

7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헌신적이기를 바라고, 여성은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글쓴이는 이와 같은 현상을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8 (바)의 “현대인들은 점점 ~ 경향이 나타난다.”에서 알 수 있듯, 글쓴이는 현대인이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이를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 했을 뿐, 이를 대체할 대상을 찾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9 <보기>에서 평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ㄹ양’은 결혼을 결심한 이유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ㄹ양’은 본문 (사)의 ‘그것(결혼)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을 중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10 (바)의 “사랑을 통해 ~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사)의 “현대인은 점차 ~ 추구하고 있다.” 등에서 현대인들이 사랑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중시하는지는 알 수 없다.

11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이를 문제점으로 파악하거나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2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는 사랑의 사전적 정의이고, 이에 대해 신경 과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랑을 욕구나 동기로 보는 과학적 관점의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3 (바)의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 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를 고려할 때 ②는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없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바), (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이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이고, 이 물질들은 혈기 왕성해진 신체, 신경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 등 사랑에 빠졌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증세들을 유발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고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쓴 경우	5점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한 가지만 바르게 썼거나,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3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켜 <보기>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했으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26~29쪽

1 ③ 2 ① 3 ① 4 독서를 통해 풍성한 힘을 얻고, 자신을 재 발견하며, 기쁨이나 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5 ② 6 ⑤ 7 ① 8 ③ 9 ① 10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1 ④ 12 ② 13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에 가깝고, 뇌 안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이다. 14 ⑤ 15 ④ 16 ②

- 1 글쓰이는 책을 읽을 때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자신을 버리고 몰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며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2 (라)의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를 통해, 신문이 잘못된 독서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3 (라)에서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온갖 잡다한 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글쓰이가 말하는 ‘잘못된 독서’로 보기는 어렵다.
- 4 ㉠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는 독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마)에서 글쓰이는 “더 풍성한 힘을 ~ 무슨 소용인가?”를 통해 독서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5 글쓰이는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것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 6 ㉡은 억지로 책을 읽는 태도를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7 (마)의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찍으려 한다.”에서 현대인들의 사랑의 열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남성들의 사랑의 열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8 <보기>에는 수동적이고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다)에서는 여성이 기존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직접 사랑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 9 (라)의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 남성을 꿈꾼다.”에서 결혼한 후 남성과 여성이 기대하는 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탄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동상이몽(同床異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일장춘몽(一場春夢): 한바탕의 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양자택일(兩者擇一):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
- ④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건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 ⑤ 탁상공론(卓上空論):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리.

- 10 ㉠ 앞에 제시된 “사랑을 통해 ~ 자아를 확산해 가는 방식의 사랑이 그것이다.”를 통해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가)의 “과연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에서 사랑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어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까움을 밝히고 있다.
- 12 <보기>를 통해 김 진사와 윤영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윤영이 김 진사보다 사랑의 정도가 더 약한지, 또한 사랑의 강도에 따라 도파민의 분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3 (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 더 가깝다.”와 (마)의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등을 통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서술할 수 있다.
- 14 글쓰이는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은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사랑은 그와 같이 대응하는 표정이 없어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 15 ㄱ: (다)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 구별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나)의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라)의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 영역에서 처리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6 “도파민과 함께 ~ 분비도 늘어난다.”를 통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이 식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체내에서 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II. 독서의 계획과 태도

01 독서의 계획과 실천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 한정원 •

내용 확인하기

33~35쪽

1 ④ 2 ③ 3 책 읽기는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4 ⑤ 5 ⑤ 6 ③ 7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8 ③ 9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과학 분야로 이끌어 주었다. 10 ⑤ 11 ④ 12 ④

- 1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을 인터뷰한 글로, 최재천의 독서 이력과 독서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2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집에 있는 유일한 읽을거리가 《동아 백과사전》이 전부였다고 하였다.
- 3 최재천은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하였다.
- 4 《세계 동화 전집》 말고는 다른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였다.
- 5 어머니가 사 주셨던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속의 소설들을 반복하여 읽다 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 6 전집을 다양하게 읽은 것으로 보아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을 한정하여 읽었다고 볼 수 없다.
- 7 ‘읽고 또 읽어서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를 통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 8 모닥불에 간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재미의 이타적인 행동을 보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였다.
- 9 술제니친의 책은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최재천을 과학 분야로 이끌어 주었다.
- 10 최재천은 사회와 세계로 뻗어 나갈 젊은이에게 필요한 무기는 공부하는 능력이며,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라고 하였다. 독서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인 것은 아니다.

11 최재천이 말하는 ‘폭넓은 독서’는 쉬운 책, 어려운 책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책에 도전하는 독서이다.

12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소단원 평가

37~39쪽

1 ① 2 ② 3 ④ 서술형은 이렇게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 적성과 진로, 학업과 직무 등을 고려한다. 4 ⑤ 서술형은 이렇게 자연 과학 자에게서는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5 ② 6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글을 쓰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7 ③ 8 ① 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공부, 폭넓게 [2단계] 일, 전략, 삶의 현장, 다양하게 [3단계] 독서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며, 일이자, 전략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적절한 독서 방법은 쉬운 책, 어려운 책 가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 다양한 주제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이다.

- 1 평생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 능력을 갖추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과제로 주어진 책만 읽는 것은 수동적인 독서 태도이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평생 독자는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 ③ (다)에서 평생 독자가 되려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 ④, ⑤ (라)에서 평생 독자는 독서 계획의 실천 여부와 그 효과를 확인하고 독서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나)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일이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3 독서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독서를 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독서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4 최재천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은 까닭은 읽을 책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일 뿐,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은 것은 아니다.
- 5 인터뷰 대상의 독서 이력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다양한 독서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③ 어려서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에 따른 인물의 독서 이력과 습관, 독서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④ 직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말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⑤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면서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이고 있다.

6 (다)에서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러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7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려운 책에 도전하며 다양한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평생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독서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읽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태도이다.
- ⑤ 정년이 연장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일과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8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솔제니친의 수필이 최재천을 과학 분야로 이끌어 주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다)에서 최재천은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에서 평균 수명의 증가로 한 직장, 하나의 직업을 갖는 것은 옛날 일이라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므로, 결국 독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④ (라)에서 어려운 책이라도 참고 계속 읽다 보면 나름의 방법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 ⑤ (가)에서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개미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던 최재천은 그 당시에는 의문을 풀지 못했지만 사회 생물학을 전공한 뒤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다)에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하였으며, 독서는 취미가 아닌 일, 전략,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였다. (라)의 첫 문장에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다)의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부분에 독서에 대한 최재천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라)에서는 폭넓은 독서 방법

이 중요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최재천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와 적절한 독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최재천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와 적절한 독서 방법을 어느 정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3점
최재천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와 적절한 독서 방법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본문에 최재천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나 적절한 독서 방법이 직접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천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한다.

02 독서 문화에 참여하기**함께 읽기의 즐거움 _ 《오래된 미래》를 읽고**

내용 확인하기

41~45쪽

1 ④ **2** 책 《오래된 미래》의 1부를 중심으로 글쓴이가 말하는 라다크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3** ④ **4** ⑤ **5** ⑤ **6** 라다크 사람들의 삶에서 특히 인상적인 모습과 그 이유,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의 차이 **7** ①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너무 쉽게 다툼으로 빠지며,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4** ⑤ **15** ② **16** ⑤ **17**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양식

1 제2부에서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삶의 양식이 변모한 라다크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서구 문명에 대한 저항의 결과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회자 말 중 2문단에 첫 번째 토론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드러나 있다.

3 샤먼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 것은 맞지만, 이들은 혼령의 말을 들려주는 존재로 인식될 뿐이며 마을의 일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4 토론에서 다룬 책인 《오래된 미래》의 1부 내용을 각 장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고 논제로 삼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5 사회자는 발제문의 내용 정리 및 토론 주제 소개, 토론 진행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제문을 평가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6 사회자의 발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토론의 주제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 7 시간을 느슨하게 측정하는 태도가 반영된 말들을 통해 라다크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8 라다크의 철학자 타시는 유럽의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내용의 시를 썼다. 따라서 라다크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 9 라다크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만하면 서로 직접 맞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를 찾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일이 없다고 하였다.
- 10 라다크의 불교 철학자 타시는, 자신들은 유럽의 발전된 산업과 기술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서구인의 삶과 자신들의 삶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11 라다크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담긴 문제점을 파악하고 라다크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오래된 미래》의 2부에 제시될 내용이다.
- 12 토론 사회자는 토론의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한 뒤, 그러한 주제로 토론하는 활동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13 ‘자발적 중재자’를 통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라다크 사람들과 달리, 너무 쉽게 다툼으로 빠져들고 중재자라 해도 주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14 현재 우리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15 이기적인 태도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습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태도가 행복의 비결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 16 사회자는 토론 내용 요약, 문제 제기, 다음 토론 안내를 하였지만, 토론의 승패는 판정하지 않았다.
- 17 사회자의 말 “과연 우리는 ~ 삶의 길을 생각해 보자.”에 다음 토론에서 다룰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소단원 평가

47~51쪽

1 ⑤ 2 ② 3 ③ **서술형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와 다른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다지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새로운 독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 독서 효과를 높이고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다. 4 ③ 5 ③ 6 되도록 싸우지 않으려 하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를 찾아가 해결한다. 개인의 이익과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며 살아간다. 7 ③ 8 라다크 사람들의 삶에서 특히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9 ⑤ **서술형은 이렇게** 시간을 느슨하게 측정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려하는 태도 없이는 정겨운 삶을 이루어 나가기 어려우므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물질적 풍요로운 추구하면 결핍을 느끼게 되므로 제한된 자원을 알뜰하게 활용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 1 (다)의 첫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책 읽기는 기본적으로 독자 개인의 지적·인격적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 2 함께 읽기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함께 읽기’도 책 읽기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였다.
③ (나)에 함께 읽기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④, ⑤ (가), (다)에서 함께 읽기를 하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독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 3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책을 읽으며 얻은 정보나 소감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혼자 음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4 서점에서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책을 읽는 활동이 아니다.
- 5 토론 대상인 책에 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을 뿐, 토론할 때 주의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민우의 발제를 들어 보자고 하였다.
②, ⑤ 첫 문단에서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④ 책의 1부를 중심으로 라다크의 전통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였다.



6 4장에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7 토론에서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고 했을 뿐, 책 내용을 우리의 삶과 비교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문장에서 《오래된 미래》의 1부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 ② 각 장별로 제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4장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토론 논제를 제안하고 있다.

8 사회자는 (가)에서 토론할 주제 두 가지를 제시하였고, 토론자들은 (나)에서 책에서 본 라다크 사람들의 삶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9 지은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와, 나무가 고립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타시의 말을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나무를 나무로 만들도록 돕는다는 것은 나무가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다.

10 민우는 첫 번째 발언에서 라다크 사람들이 잘 싸우지 않으며, 분란이 생기더라도 자발적 중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인상 깊었던 시의 내용과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였다. 라다크 사람들이 갈등을 대하는 태도, 또 라다크 사람들의 삶과 서구인의 삶의 차이를 이야기했을 뿐,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라다크 사람들이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② 라다크의 불교 철학자 타시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 ③ 자신이 직접 겪은 할머니와의 일화를 통해 자신이 인상적으로 느낀, 라다크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 ⑤ 개울 아래쪽 사람들을 위해 개울에 빨랫감을 넣지 말라고 한 소녀의 이야기를 제시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11 ㉠은 '서로 굽히지 아니하고 마주 겨루어 버티다.'의 의미로, '대립하다' 또는 '대치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③ 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의 뜻

④ 회피: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하다.'의 뜻

⑤ 조정: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다.'의 뜻

12 우철은 '일 분 일 초'를 따지고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현대적 삶이 사람들을 성급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해 관계를 침해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가', '라'는 지은의 생각, '마'는 민우의 생각에 해당한다.

13 토론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들었다는 것은 독서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책 내용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용을 파악하여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과정'이라 한 것이다.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해졌다는 언급은 없다.
- ③ '그냥 지나쳤던 내용'을 새롭게 주목한 것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한 것에 해당한다.
- ④ 책을 읽고 독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 행위이다.

14 (나)에서 사회자가, 토론자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심각하게,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 삶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하여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1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지은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지은은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잊거나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습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여,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와 이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 두 가지는 바르게 서술했으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와 이유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지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은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삶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정리한다. 지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닌데 짐작하여 쓴 내용이나 다른 학생이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면 감점된다.

1 ⑤ 2 ④ 3 ② 4 ② 5 ④ 6 독서를 해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7 ① 8 ⑤ 9 ① 10 ④ 11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생활화되도록 가정 교육을 해야 한다. 12 ④ 13 ⑤ 14 ④ 15 라다크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여유 있고 갈등에도 관용적이고 타협적인 반면, 우리는 성급하고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따지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

- 1 최재천은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읽으라고 말하였다. 어려운 책이라도 계속 도전하여 읽으면 나름의 방법이 생겨서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도 별 도움 없이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③ (마)에서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읽을 것을 권하였다.
② (다)에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글 쓰는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④ (라)에서 솔제니친의 글을 읽고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 2 (나)의 마지막 문장, (마)의 두 번째 문단 등에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가)에 최재천의 독서 경험과 관련된 인터뷰를 통해 삶의 지침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으며, 글에서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은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팔과 손목을 움직여 공중으로 내보낸다.
③ 그림자를 나타낸다.
④ 재물이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다.
⑤ 일 따위를 중도에 그만두다.

- 4 최재천은 학창 시절에 전집을 읽으면서 남다른 감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특히 솔제니친의 글을 읽으면서 자연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후에 과학자가 되었다.

- 5 (마)에서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일, 전략,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최재천에게 독서가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6 (라)와 (마)에서 최재천은 사회로, 세계로 나아갈 젊은이들이 지녀야 할 무기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하였다.

- 7 한국 단편 문학을 모두 섭렵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이 쉬웠다는 의미이므로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속담이 어울린다.

오답 풀이

- ②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⑤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언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

- 8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독서 토론을 통해 책의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여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9 우철은 라다크 사람들이 시간을 느슨하게 측정하는 것을 인상적인 부분으로 제시하며, 그 이유로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③, ⑤ 지은의 의견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④ 민우의 의견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 10 (다)에서 민우가 라다크 철학자 타시의 이야기를 하자, (라)에서 지은은 타시의 말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떠올리고 있다.

- 11 <보기>에서 지은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 12 토론자들은 라다크 사람들의 전통적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 13 민우의 말을 보면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결핍을 느낀다고 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습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14 (마)에서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요약하고, 현대 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질문함으로써 더 생각해 볼 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에 토론할 논제를 안내하였다.

- 15 (나)에서 우철은 시간이나 갈등을 대하는 데서 드러나는 라다크 사람들과 현재 우리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Ⅲ. 독서의 방법

01 사실적 읽기

☞ 커피 이야기 · 김성윤 ·



내용 확인하기

59~61쪽

1 ② 2 ④ 3 ④ 4 ③ 5 ⑤ 6 ② 7 ⑤ 8 ④ 9 ⑤ 10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한다.

- 1 ①에서는 커피라는 대상을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로 구분하고, 그 개념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2 건식법에서는 생두를 발효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두를 발효하는 과정은 습식법에서 이루어진다.
- 3 ②에서는 커피 가공 방식을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분류하고 건식법의 첫 번째 단계인 체리 수확과 두 번째 단계인 체리 선별 작업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건식법, 습식법, 수확, 선별’ 등의 단어가 ②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 4 ㉠은 체리를 건조하는 모습에서 고추를 건조하는 모습을 유추하고 있고, ㉡은 체리가 너무 마른 경우와 덜 마른 경우를 대조하고 있다.
- 5 ⑨는 생두에 남아 있던 은색 막을 벗기고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큐어링 과정과, 품질에 따라 생두에 이름과 등급을 매기는 분류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⑥의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라는 부분에서 수확한 체리를 세척하고 분류하는 것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 7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불유쾌한 신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되는 것은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 8 ㉠은 로스팅을 통해 ㉡이 되는데, 로스팅은 ㉠에 들어 있는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 9 ④에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은 정의, ②는 분류, ③은 과정, ④는 비교와 대조에 대한 설명이다.
- 10 생두를 로스팅하여 얻은 원두를 커피 음료로 마시기 위해

서는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63~65쪽

1 ④ 2 ③ 3 ⑤ 4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기 때문이다.
5 ② **서술형은 이렇게** ㉠은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간다(기계와 물을 적게 사용한다). ㉡은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고 훼손도 적다. 6 ② 7 발효를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④ 9 ④ 10 ① 11 **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가공, 로스팅, 커피 소비 운동 [2단계] 가공, 로스팅, 커피 소비 운동 [3단계] 이 글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쳐야 하는 커피 가공 과정과 로스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커피 소비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 (라)에는 체리의 건조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만, 유추가 아니라 대조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라)에는 건식법의 건조부터 포장에 이르는 단계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고, 건식법을 사용하는 커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 2 (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커피는 가공 과정을 거쳐 다양한 향과 맛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갓 수확한 생두는~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에서 갓 수확한 생두는 향은 거의 없지만, 쓴맛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를 통해 값싼 로부스타 커피에는 건식법을, (마)를 통해 고급 아라비카 커피에는 습식법을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로부스타 커피가 아라비카 커피보다 비싸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임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고 하였다.
- 3 ④는 건조 작업이다. (다)를 통해 건조 작업을 선별할 때는 선별한 체리를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 위에 놓고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햇볕에 골고루 말림을 알 수 있다.
- 4 (라)를 통해 건식법은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로부스타 커피를 가공할 때 주로 건식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5 (마)에서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식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였다.

- 6 (라)에서 큐어링 과정에서는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생두를 기계를 사용해 솟아 낸다고 하였다.
- 7 (나)에서 생두를 발효할 때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으므로 발효 과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8 (나)를 통해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는 얇은 은색 막만 남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은색 막은 큐어링을 거치면서 제거된다.

- 9 이 글의 (가)는 습식법과 건식법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큰 놈과 작은 놈의 죽음, 개와 이의 죽음,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의 아픔을 비교하며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라)는 큐어링의 방법을, <보기>는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은 가치를 지남을 밝히고 있다.
- ② 이 글의 (다)에는 생두의 건조 과정이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이 묘사되지 않았다.
- ③ 이 글의 (가)~(다)에는 습식법의 과정이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이 글의 (마)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캐러멜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명상했던 경험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 10 (가)의 핵심어는 ‘수확한 체리, 세척 및 분류 과정, 체리의 껍질과 과육 제거’이다.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이 글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쳐야 하는 커피 가공 과정과 방법, 그리고 로스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보기>는 커피를 마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와 환경 파괴에서 벗어나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커피 소비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이 글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쳐야 하는 커피 가공 과정과 로스팅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보기>는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커피 소비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이 글이 커피 가공 과정과 로스팅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보기>가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커피 소비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두 쓴 경우	5점
이 글이 커피 가공 과정과 로스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보기>가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커피 소비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3점
서술 내용이 미흡하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이 글은 커피 가공 과정과 로스팅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두 개를 모두 써야 감점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공정 거래 커피’보다 ‘커피 소비 운동’이 좀 더 중요한 용어이므로 ‘사회 정의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커피 소비 운동’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감점되지 않는다.

02 추론적 읽기

▶ 앎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 윤구병 ·

내용 확인하기

67~69쪽

1 ④ 2 ③ 3 ⑤ 4 ② 5 ③ 6 ⑤ 7 ③ 8 ⑤ 9 ④

- 1 (나)의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라고 한 부분으로 볼 때, 글쓴이는 문화유산이 심미안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글쓴이가 자신을 젓먹이에 비유한 이유는 글쓴이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농사일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 3 조선식 정원(농가의 뜰)에 대해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글쓴이는 조선식 정원이 겨울에는 보잘것없이 매마른 풍경을 보여 주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마)에서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 데다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공 염료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베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실험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5 글쓴이는 2년 전부터 다양한 향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숨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을 구분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향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통해 ‘향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6 (아)에서 “소중한 그릇이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 쉬는 향아리들에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라고 서술하였으므로, 글쓴이는 향아리가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향아리를 모으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7 ㉠은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 온 ‘기르는 문화’, 즉 전통과 대조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에 해당하는 것은 드론, 의료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 8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글쓴이는 ㉠이 옛 추억을 떠올리는 역할을 하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9 글쓴이는 삶의 지혜와 힘으로서의 전통 문화유산이 전승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71~73쪽

1 ⑤ 2 ② 3 ① 4 ③ 5 ① 6 ⑤ 서술형은 이렇게 생산 문화,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이 있는 나무와 꽃들이 있기 때문이다.

7 ④ 8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의 말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앎과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9 ⑤ 10 ②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 [2단계] 자본, 자연 [3단계] 글쓴이는 자본 중심적인 현대의 ‘만드는 문화’를 비판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기르는 문화’를 지향한다.

- 1 농가의 뜰에 심어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초라하다고 느꼈다가 나중에는 가꾼 사람의 슬기로움에 놀라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농촌에서의 경험과 생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가 많이 심긴 감나무를 보고 생산 문화를 떠올리는 모습에서 소박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 2 (나)의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를 통해서 글쓴이는 농사일에 아는 것이 없어 살아남을 길을 찾기 위해 농촌의 생활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나)의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는 문화유산에 의식주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의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삶의 흔적은 동시에 앎의 흔적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통해 문화유산이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며 앎의 흔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4 (나)의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하여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살던 사람들의 고급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라고 한 부분에서 글쓴이가 화려한 생활보다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마)는 “감은 꽃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을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거터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감나무의 생산적인 성격을 예찬하고 있고, <보기>는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厚待)하고 새와 바람은 박대(薄待)하는 일도 없다. 말은 말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라고 하면서 나무의 너그러운 성격을 예찬하고 있다.
- 6 농가의 뜰에 심어진 나무에서는 과일을 얻을 수 있고, 꽃들은 한약재로 쓰이거나 머리를 감는 데 사용되거나 술을 빚는 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농가의 뜰에 심어진 나무와 꽃은 모두 실용적이고 생산적이다. 글쓴이는 ㉠에서 소비 문화가 아니라 생산 문화를 떠올렸다.
- 7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 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에서 ‘양파 껍질’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실태를 문제시키기 위해 사용된 소재가 아니다. 또한 글쓴이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없다.

8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글쓴이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과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가슴에 듣는 단비 소리보다 더 반갑게 들리는 것이다.

9 글쓴이는 처음에 솜씨가 서툰 향아리와 예쁘지 않은 향아리를 분별하기는 했으나, 장독대를 꾸밀 때는 다양한 종류의 향아리를 사용하였다.

10 (가)의 글쓴이는 농촌에서 생활하며 과일나무와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여기고, 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하는 모습에서 자연 중심의 생활에 대한 긍정과 실천력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보기>의 글쓴이는 더운 여름날 물가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하고, 지구가 너무나 단조롭고 무미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에서 권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마)에서 글쓴이는 ‘만드는 문화’ 때문에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함부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면서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 왔던 ‘기르는 문화’가 계속해서 전승되기를 바란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만드는 문화’는 자본 중심적이고 현대적이며, ‘기르는 문화’는 자연 친화적이고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왔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만드는 문화’를 비판하고 ‘기르는 문화’를 지향한다는 내용과, ‘만드는 문화’가 자본 중심적이고, ‘기르는 문화’가 자연 친화적이며 오래전부터 전승됐다는 내용을 모두 쓴 경우	5점
‘만드는 문화’를 비판하고 ‘기르는 문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썼으나, ‘만드는 문화’나 ‘기르는 문화’의 특징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3점
‘만드는 문화’를 비판하고 ‘기르는 문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썼으나, ‘만드는 문화’와 ‘기르는 문화’의 특징을 둘 다 쓰지 못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만드는 문화’를 비판하는 대상으로, ‘기르는 문화’를 지향하는 대상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가장 크게 감점된다. 또한 ‘만드는 문화’의 특징이 자본 중심적이라는 점, ‘기르는 문화’의 특징이 자연 중심적이고 오래전부터 전승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특징을 빠뜨릴 때도 감점된다.

03 비판적 읽기

■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 안창호 ·

내용 확인하기

75~78쪽

1 ③ 2 · 가장 불쌍한 사람: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 · 가장 복 있는 사람: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 3 ② 4 ⑤ 5 ③ 6 공포심(무정함) 7 ④ 8 ⑤ 9 ③ 10 ② 11 남에게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12 ⑤

1 정의, 친애, 동정, 돈수의 뜻을 정의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에서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3 무정한 사회는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부분을 통해 무정한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4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로 볼 때, 우리 민족이 유정한 사회의 맛을 본 적이 있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진단하고 있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허례’는 ‘정성이 없이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6 글쓴이는 아이들이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무정한 대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7 ㉔는 부부 사이에 웃을 일이 없이 지내다 보니, 웃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8 이 글은 무정한 대한 사회를 비판하고, 정의의 돈수를 길러 유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강연한다면 사랑이 부족한 동포들에게 정의의 돈수를 길러 우리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이 적절하다.



9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근심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근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언급한 서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10 “일언일동(一言一動)에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는 정의를 손상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글쓴이가 제시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몇 가지” 중에는 “남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만일 남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손상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람은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에 해당한다.

11 정후는 친구인 산하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글쓴이가 제시한 “4. 남에게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항목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12 ㉠에서는 앞말의 뒷부분에 사용한 말을 뒷말의 앞부분에 계속 연결하여 표현하는 연쇄법이 사용되었다.

소단원 평가

80~83쪽

1 ① 2 ④ 3 ② 4 ④ 서술형은 이렇게 어떤 말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5 ②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혼자 [2단계] 친목, 정의 [3단계] 혼자 사는 삶에서 벗어나 정의를 기르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1 (나)에서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2 <보기>에서 유자는 효성과 공경은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랑에는 효성과 공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기>의 유자는 사랑하면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랑과 공경을 별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유자가 언급한 사랑과 이 글의 글쓴이가 언급한 사랑의 속성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다고 한 것이지, 돈수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가)에 따르면 돈수란 정의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므로, 글쓴이는 정의의 돈수를 공부하고 연습하여 정의를 기르자고 하였다.

② 글쓴이가 우리 민족이 효와 제에 힘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글쓴이는 우리 민족이 혼례에 대한 법도가 바로 서지 않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과 이 글에서 언급한 운동을 같은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궁극적 목적은 정의를 키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민족의 사회 문제에 냉정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에서는 불행하고 불쌍한 자와 다행하고 복 있는 자를 대조한 뒤, 유정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이 부분에서는 정의와 사회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4 (가)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의 (D)에서 “혈연 선택 이론이란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혈연도가 높은 다른 개체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말한다.” 부분에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5 (다)의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雨露)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는 유정한 사회를 태양과 우로, 화원 등에 비유한 표현이지, 유정한 사회에 태양과 우로(雨露)가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6 (나)의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 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 나와 배회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⑤에 대한 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7 <보기>에는 1618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고 식민지에 노동력을 수급하고자 미혼모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강제로 식민지에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서양 아이들은 꽃보다 귀하며 정의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내용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8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 ①, ②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⑤ '집신이나 미투리 따위를 곁어서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9 찬바람은 냉랭하고 싸늘한 기운이나 느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민 간의 관계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매정하다는 것을 찬바람이 분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10 글쓴이는 (다)에서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써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정의를 기르기 위해서 결코 남의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보기>의 ‘나’는 혼자 사는 삶이 쓸쓸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가)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는 삶이 정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나’가 긍정하는 혼자 사는 삶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할 것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나’가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정의 있는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언을 쓴 경우	5점
<보기>의 ‘나’가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은 쓰지 못했으나, 정의 있는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언을 쓴 경우	3점
<보기>의 ‘나’가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은 썼으나, 정의 있는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언을 쓰지 못한 경우	1점

[감점 피하기 tip] (가)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정의 있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서술되지 않으면 가장 크게 감점된다. 또한 <보기>의 ‘나’가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도 감점된다.

04 감상적 읽기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 나희덕 •

내용 확인하기

85~87쪽

1 ① 2 탱자 가시에 찢려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사건 3 ② 4 ④ 5 ④ 6 ④ 7 ⑤ 8 ① 9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 얻은 결실을 의미한다.

1 유년 시절에 탱자나무 가시에 찢려 가시에 대해 생각했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가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경험이 드러나 있다.

2 (다)의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통해, 탱자 가시에 찢려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통통 부었던 사건이 탱자나무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라)의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부분을 통해 아버지는 글쓴이가 가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행주’, ‘겉레’, ‘빨랫감’, ‘무거운 장바구니’ 등은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힘겨운 일상을 의미한다.

5 (아)의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부분을 통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의 “뽕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찢러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부분을 통해 글쓴이가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이겨 내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6 글쓴이는 화가 로트레크의 말인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를 인용하면서,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로트레크의 그림은 삶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 낸 훌륭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 7 ‘이런 가시들’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삶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구자명 씨가 집에 돌아온 후 쉬지 못하고 ‘간밤 아기에 게 젖 물린 시간,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이다.
- 8 이 글의 글쓴이는 눈앞에 ‘질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다고 했고, <보기>의 화자는 마음이 어지러운 날 ‘수’를 놓으면 가슴속 아우성이 가라앉는다고 하였다.
- 9 탱자나무가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 낸 향기로운 열매인 탱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얻은 결실에 비유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89~91쪽

1 ③ 2 ② 3 ① 4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5 ⑤ 6 ② 7 철거 계고장, 철거 계고장은 어머니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8 ① 9 ⑤ 서술형은 이렇게 탱자나무 울타리가 인생에서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 준 듯이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1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지양, 추구 [2단계] 가시, 견뎌 [3단계] ⑦는 가시를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④는 가시를 통해 얻는 견뎌한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 1 글쓴이는 유년 시절에 탱자 가시에 찔려 손이 부었던 것을 계기로 탱자나무와 가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탱자나무의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탱자 꽃잎을 관찰하다가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가시의 양면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탱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시’의 양면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나)에서는 탱자와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추억을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탱자 가시를 이용한 장난 때문에 겪게 된 아픔을 부정적인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⑦는 글쓴이가 유년 시절 가지고 놀던 탱자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보기>의 ③ 또한 허생원이 겪었던 ‘그 이야기(봉평에서의 인연)’를 떠올리게 한다.

- 4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가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라는 설명에서 ㉠~㉢ 모두 생명체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5 이 글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의 종류와 ‘가시’를 대할 때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마)에서 글쓴이는 가시 자체가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어떤 종류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없다.
- 6 <보기>의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부분에서는 고통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지만, (마)의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부분에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마)의 ‘로트레크의 그림’과 <보기>의 ‘꽃’은 고통을 이겨 낸 후에 얻은 값진 결과물을 의미한다.

- 7 ①은 로트레크가 지닌 ‘가시’ 즉, 고통이다. <보기>에서 어머니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은 통장이 전해 준 ‘철거 계고장’이다.
- 8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 성어이므로 ④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이다.

오답 풀이

- ②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③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
 ④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
 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곤란하게 됨.

- 9 ①은 탱자나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 맺은 가치 있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1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잃어버려야 할 것’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 지양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지켜 가야 할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뽕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를 고려할 때, 버려야

할 태도는 가시가 뽑히기를 바라는 태도, 즉 가시를 부정하는 태도이다. “날카로운 가시아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 줄 선물일 수도 있다.”를 고려할 때, 지켜야 할 태도는 가시를 통해 얻는 겸허한 삶의 태도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는 가시를 부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과, ㉡는 가시를 통해 얻는 겸허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는 가시를 부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과, ㉡는 가시를 통해 얻는 겸허한 삶의 태도라는 것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05 창의적 읽기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 남종영 ·



내용 확인하기

93~95쪽

1 ① 2 ② 3 ⑤ 4 ④ 5 ② 6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 ① 8 ③ 9 2013년

- (다)에서 공기의 흐름과 해류의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쓰레기 섬이 형성된 원인을 밝히고 있다.
- (가)의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지도를 펼쳐 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에서 쓰레기 섬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다)에서 쓰레기 섬은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고, 이렇게 쓰레기가 모여 하나의 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 (마)에서 쓰레기 배출 원칙은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2012년까지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였다.
- (바)에서 “동해 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퍼센트 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고, 서해 병 구역과 동해 정 구역은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퍼센트와 13퍼센트를 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가 ㉡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6 (마)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진다는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렸음을 알 수 있다.

7 (차)에서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지구의 자정 능력이 정확히 언제 작동하지 않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8 (자)의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부분을 통해, 이 글에서는 우리가 바다에 계속 쓰레기를 버렸을 때 바다의 생태계가 오염되어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아)에서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97~99쪽

1 ① 2 ② 3 ④ **서술형은 이렇게** 섬이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4 ③ 5 ② 6 ② 7 ① 8 바다가 오염되면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기 때문에,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축소하여 바다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9 1 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물건, 쓰레기, 기술 [2단계] 물건, 쓰레기, 환경 정책 [3단계]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 (가)에서는 찰스 무어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에서 쓰레기 섬을 발견한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 나갔다.”와 같이 찰스 무어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가)의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 (다)의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부분을 참고했을 때 ‘쓰레기 섬’은 ㉠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찰스 무어가 ‘쓰레기 섬’을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은 쓰레기 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적인 섬이 아니라 현대 물질문명의 산물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에서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다. ~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쓰레기 섬’에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4 준서는 쓰레기 수거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섬 주변의 해양 생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글과 <보기 1>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해양 생물의 종류가 매우 많고 쓰레기 섬의 면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섬 주변의 해양 생물 이주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 1>에서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해양 생물을 제거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장치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장치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② <보기 1>에서 “오션 클린업은 이번 1호 쓰레기 수거기가 일 년 동안 임무를 완수하면, 2020년까지 청소 장치 60개를 더 띄워 쓰레기 섬의 90%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였으므로, 쓰레기 섬의 면적을 좀 더 빨리 줄이기 위해 ‘오션 클린업’에서 개발한 장치를 더 많이 생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 ④ <보기 1>에서 “해마다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이 장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다로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 ⑤ <보기 1>에서 “이 장치는 태양열로 작동하는데 카메라와 센서, 위성 안테나 등이 장착되어 본부에서 장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타당한 생각이다.

5 (다)의 “그렇다면 바다 아무 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지 않다.”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 금지 때문에 쓰레기 해양 투기가 발생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기술·환경 정화 기술의 개발 및 투자 부족 때문에 해양 투기를 택했다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6 서해 병 구역의 수심은 80미터, 동해 병 구역의 수심은

200~2,000미터, 동해 정 구역의 수심은 약 150미터 정도이다. 따라서 선정된 세 곳 중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동해 병 구역이다.

7 (나)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만든다.”라고 하였으므로 ㉠에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8 (바)에서 바다의 오염이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바다 쓰레기장’의 일부에 휴식년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고 하였으므로,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축소하여 바다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바다 쓰레기장’에 휴식년제를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방안이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방안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둘 다 서술한 경우	5점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감점 피하기 tip] 개인적 차원에서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감점된다.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범주를 잘못 설정해 서술한 경우는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다.

1 ③ 2 ② 3 ④ 4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5 ④ 6 ⑤ 7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생두를 속아 내기 위해서이다. 8 ⑤ 9 ⑤ 10 ① 11 농사일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아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2 ⑤ 13 ④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글씨는 삶을 사람답게 꾸려 갈 앓과 힘이 되어 주는 전통 문화유산이 대대로 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20 ④ 21 ④ 22 ⑤ 23 ⑤ 24 ② 25 ③ 26 ④ 27 ③ 28 ③ 29 ④ 30 ⑤ 31 ⑤ 32 ⑤ 33 ④ 34 ⑤ 35 ① 36 ⑤ 37 ② 38 ①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양과 대기층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 1 (다)에서는 기후와 농장의 규모에 따른 체리의 건조 기간과 방법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나)는 커피를 가공하는 두 가지 방식 중 건식법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④ (라)는 체리 건조 작업의 중요성과, 건조 작업 후의 분류 과정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마)는 습식법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2 (나)에서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을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분류하고, 건식법의 첫 번째 단계인 체리 수확과 두 번째 단계인 세척 및 분류 작업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분류와 과정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다)에서는 고추를 말리는 방법을 통해 체리를 건조하는 방법을 유추하고, 기후와 규모에 따른 건조 기간과 방법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견주고 있으므로 유추와 비교·대조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 3 (나)를 통해 커피 농장의 위치와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과정을 달리하는 것은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4 (마)를 통해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식법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라)에서는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의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을 매긴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생두의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6 (가)의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에서 습식법과 건식법 모두 물이 담긴 탱크를 이용해 수확한 체리를 세척하고 분류함을 알 수 있다(ㄷ). 그리고 (다)의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돛자리를 사용한다.”에서 습식법과 건식법 모두 생두를 햇볕에 말릴 때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돛자리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ㄹ).

- 7 (라)를 통해 큐어링 과정에서는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생두를 속아 내기 위해 기계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8 ㉠는 세척 및 발효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효는 24~36시간이 걸리며 생두의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 9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찌는 과정이 있는 것은 <보기>의 홍삼뿐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다듬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량을 확인하고 증기로 홍삼을 부드럽게 한 후 일정한 틀에 넣어 압착한다.” 부분을 통해, 이 글의 생두와 달리 <보기>의 홍삼은 압착하는 작업을 함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와, <보기>의 “말린 인삼은 생육 기간과 표피의 두께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에서, 이 글의 생두와 <보기>의 인삼 모두 두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함을 알 수 있다.
 ③ (다)를 통해 생두 건조에는 햇볕이나 기계(드라이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 번 세척된다. ~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부분과, <보기>의 “인삼 표면의 흙이나 모래 등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물로 고압 세척한 후 말린다.” 부분을 통해, 이 글의 생두와 <보기>의 인삼 모두 물로 세척한 후 말리는 작업을 함을 알 수 있다.

- 10 (가)에서는 집, 그림, 그릇의 예를 통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11 (나)의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젓먹이나 다름없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부분을 통해, 글쓴이가 농사일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아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2 ‘할 줄 안다’라는 말은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하였으므로, ㉠과 ㉡은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는 관계에 있다.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농가의 딸’이 ‘조선식 정원’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말 또한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는 관계에 있다.

13 (다)에서 글쓴이는 ㉢를 포함하여 농가의 딸에 있는 나무들을 보며 딸을 가꾼 사람의 슬기로움에 놀라고 있다.

14 이 글에서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이 있는 나무와 꽃은 생산 문화, 보기에 잘 꾸며 놓은 양중맞은 상록수는 소비문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도시의 정원의 속성을 보여 준다. <보기>에서 ‘송 영감’은 자신이 만듦독의 터져 나간 조각(㉤)을 찾기 위해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가마 속으로 기어들어 가므로 ㉥는 ‘송 영감’의 강한 집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조상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생산 문화와 관련 있다.
- ③ 이 글에서 석류나무와 국화는 생산 문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④ 이 글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속성을 지닌 것은 ㉢가 아니라 생산 문화이다. 또한 <보기>에는 죽음에 대한 ‘송 영감’의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물려받고자 하는 문화유산은 생산 문화와 관련이 있다. 또한 ㉤가 부서진 독에 대한 ‘송 영감’의 참담한 마음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15 (가)에서는 천연물감으로 옷감을 물들인 경험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나)에서는 이웃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온다고 말하고 있다.

16 <보기>의 ‘너’는 ‘못생긴 두꺼비 연적’을 가리킨다. <보기>에서 글쓴이는 ‘너’를 통해 그것을 만든 순박하고 어리숙한 조선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다)의 글쓴이도 도시로 떠나면서 버리고 간 크고 작은 ‘항아리’들의 모습에서 항아리를 빚었을 옹기장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항아리’와 ‘못생긴 연적’은 세속적 영리와 거리가 멀다.
- ② 이 글의 글쓴이는 항아리가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안타까워 모으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살림에 보탬이 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보기>의 글쓴이 역시 ‘너’의 모습에서 애정을 느끼고 있다.
- ④ 이 글의 글쓴이와 달리 <보기>의 글쓴이는 ‘너’와의 인연을 기뻐하며 ‘너’로 인해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글쓴이는 ‘너(못생긴 연적)’의 모습을 보며 그 주인을 추추하고 있지만 뛰어난 솜씨를 지닌 장인인지는 알 수 없다.

17 <보기>의 글쓴이는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통, 그렇지 않은 것은 인습이라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기르는 문화’가 계승해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드는 문화’는 항아리와 대조되는 소비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18 스마트폰은 많은 자본이 투입된 최첨단 기술의 산물이므로 자본이 주체가 된 ‘만드는 문화’에 가깝다.

19 [A]에서 글쓴이는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 왔던 문화유산이 앞으로도 계속 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20 유정한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정한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21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므로, 자신의 논지를 부정하는 예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2 ㉠은 고통이 없고, 화기가 있고, 삶이 흥미로우며,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는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배나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밤늦게까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과 가장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할머니가 소와 연대 의식을 느끼며 고단하고 적막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② 평화롭고 신비로운 산과 깨끗한 자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 ③ 따뜻한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 ④ 외로우면서도 초연한 나그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3 무정한 우리 사회와 유정한 남의 사회의 특징을 대조하며 정의를 길러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글 전체에는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 있으나, 제시된 부분에는 없다.

24 <보기>에는 죽어서도 동생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25 (다)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아서 교사가 모두 여자라고 했지만, 여자만 교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26 <보기>의 글쓴이는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7 어린 시절 글쓴이는 탱자 가시가 박혀 부어오른 상처를 보며 가시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글쓴이는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 보면서 그 가시들에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지, 직접 그 꽃과 나무들을 찾아다니며 독이 들어 있는 이유를 알아내려 한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탱자 가시에 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8 ㉠은 가시의 양면성을 설명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의 수단이 공격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글쓴이가 느끼는 슬픔이 제시되어 있다.

29 [A]의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부분에는 글쓴이의 마음에 ‘가시’가 자라게 된 과정이, [B]의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에는 글쓴이가 ‘가시’를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A], [B]에는 모두 ‘가시’를 친근하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A], [B]에는 모두 ‘가시’와 관련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가시’의 비정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A]에는 ‘가시’의 다양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B]에서 ‘가시’가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A]에서 ‘가시’는 사람과 자연을 매개하는 존재로 제시되지 않았다.

30 (가)는 로트레크의 가시와 그 의미를, (나)는 우리 삶의 가시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는 (가)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가시의 가치를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나)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가시가 없을 때 느끼는 삶의 무의미함을 설명하지 않았다.
- ③ 로트레크는 가시 덕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므로, (나)에서 지향하는 삶과 상반된 삶을 산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와 (나) 모두 가시가 지닌 효용성이 드러나 있다.

31 (마)의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 가고 있을 탱자나무”에는 탱자나무 또한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으며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탱자나무가 글쓴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어린 나무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에는 역설적 발상이 드러나 있다. ⑤의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부분에도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33 (라)에서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였다.

34 이 글의 글쓴이는 찰스 무어가 1997년에 쓰레기 섬을 발견한 일화를 제시하고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며 글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쓰레기 섬이 형성된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쓰레기 섬이 형성된 지역의 특징을 ‘태평양의 사막’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찰스 무어가 쓰레기 섬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35 (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즉,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자원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어 이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게 된다고 하였다.

36 이 글에서는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정부가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7 (라)의 “정부는 2006년부터 세 구역의 일부에 휴식년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 부분을 통해 ‘바다 쓰레기장’ 일부 구역에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음을 알 수 있다.

38 <보기>는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양과 대기층까지 오염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에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양과 대기층까지 오염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IV.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01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 김용석 ·



내용 확인하기

115~117쪽

1 ③ **2**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3** ③ **4** ③ **5** ② **6** ④ **7** ④ 인공 노예 ⑥ 동반자 **8** ⑤ **9** ③ **10** ④ **11**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인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인간 역시 로봇을 인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1** 피노키오는 인간이 되기 전에도 장난을 치고, 욕망을 추구하며,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는 등 감정을 품고 있었다.
- 2**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로봇이 인간과 점점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 3** ‘자유 의 역설’이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역설적으로 특정 상황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를 누리지만 여러 종류의 유혹에 끌려 몸을 상하게 하거나 실수를 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장난을 치는 것은 피노키오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자유 의 역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4** 피노키오는 많은 실수를 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 진정한 인간이 된다. 여기에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외모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윤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 5**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모든 로봇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로봇은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착한 로봇’이다.

오답 풀이

③ 로봇이 생존 투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6** ㉠은 ㉡을 가리키며, 이들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은 신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이므로, 역시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을 의미한다. 반면 ㉢은 문맥상 ‘인간이라는 창조자’이므로 여기서는 조물주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 7** ㉣: (아)의 로봇이라는 명칭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인간을 대신하여 힘든 일을 할 인공 노예로서 로봇을 생각하였다.

⑤: (자)를 보면 애완동물, 간병인, 가정 교사, 배우 로봇 등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이 개발 중임을 알 수 있다.

- 8** 글을 읽고 추가로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미 글에서 답을 제시한 질문은 제외해야 한다. ⑤의 경우, 글쓴이가 이미 (사)에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을 통해 로봇과 공존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 9** (가)에서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 10**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로봇을 인간에 준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이 인간을 닮아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야기될 문제이다. 로봇에게 ‘로봇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로봇을 인간이 아닌 별개의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존재로서의 로봇의 권리를 고민할 때 야기될 문제이다.

- 11** 글쓴이는 제페토가 자신의 피조물인 피노키오를 대할 때 인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인간 역시 로봇을 인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평가

119~121쪽

1 ④ **2** ⑤ **3** ⑤ **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통제, 동반자 [2단계] 통제, 공존 [3단계] 글쓴이가 ㉡와 같이 제안한 이유는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앞으로 삶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로봇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 지능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로봇이 완벽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로봇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는 로봇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로봇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5** ③ **6** 로봇의 역할은 인공 노예에서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다. **7** ③ **8** ② **9** ③ **10** ⑤ 서술형은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적 과제를 제시한다.

- 1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글쓴이의 가치관과 생각을 파악하며, 자기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오답 풀이

- ① 화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글쓴이와 생각과 비교해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 ②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인용한 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
- ⑤ 글의 내용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

- 2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착한 로봇’의 개념을 주장하는 시게오 히로세의 견해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해 인간이 피조물인 로봇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작동 과정이나 원리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 ② 로봇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글쓴이는 두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로봇을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③ 단어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추상적인 개념이나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 3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춘 로봇이라면 모두 도덕적 존재, 나아가 성인(聖人)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기>의 테이는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지능이 있음에도 악의적 의도를 지닌 인간들에 의해 비도덕적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였다. 따라서 <보기>를 바탕으로 시게오 히로세를 반박한다면 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테이는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여 편견을 갖춘 인공 지능이 되었다.
- ② 테이가 편견을 학습하자 테이의 운영을 중단한 것은 테이에게 악행을 학습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므로, <보기>의 내용이 악행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보기>는 인공 지능이 나쁜 사례를 배운 경우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나쁜 사례를 배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보기>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 ④ <보기>는 인공 지능을 위해 인간을 통제하자는 주장을 드러낸 글이 아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인공 지능에 접근했을 경우, 현재는 인공 지능이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로봇에게 통제보다는 자율과 평등의 관계를 제안한 첫 번째 이유는 (가)에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로봇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나)에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앞으로의 로봇은 인간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로봇을 노예처럼 부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㉗의 이유로는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과 로봇이 인간의 삶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때 로봇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면, ‘로봇을 통제해야 하는가?’, ‘로봇과 자율 및 평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는 문장을 쓴다. 근거로는 첫 번째 조건에서 찾아낸 근거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측면에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㉗의 이유로 ‘로봇의 통제 불가능성’, ‘삶의 동반자로서의 로봇의 역할’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점
㉗의 이유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쓴 경우	1점
주장을 명확히 쓰고 타당한 근거 한 가지 이상을 적은 경우	3점
주장과 근거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주장만 쓰고 근거를 쓰지 못한 경우	1점

[감점 피하기 tip] 글쓴이의 견해를 정리하여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글쓴이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글의 내용을 인용하여 단순 반복하거나, 자신의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면 감점된다.

- 5 로드니 브룩스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 지능을 인공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인공 생명에 인권을 부여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로봇이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② 이 글에서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의 도덕성에 대해 말한 바 없다.
- ④ 로봇을 인공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인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로드니 브룩스는 지능을 갖춘 로봇을 통제하는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6 과거의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힘든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 노예였지만, 현재의 로봇은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등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7 제3 원칙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제1 원칙과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제2 원칙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통제하에 놓였음을 전제로 로봇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서 로봇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원칙은 모두 인간의 명령에 따르며 인간을 위해 살아가는 로봇을 전제하고 있다.
- ② 로봇이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한 배경에는 로봇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 ④ 이 글의 글쓰이는 로봇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로봇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 ⑤ '인공 노예'는 인간의 힘든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8 글쓰이는 로봇의 '인간 되기'에 대해 찬성한다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로봇 공학의 본질적 특징이 '인간 되기'를 지향한다는 것과, 인간과는 다른 방식의 존재를 지향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있음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로봇권'의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어떤 형태로 형성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이 글이 제기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독서 방식이다.
- ③ 이 글은 <피노키오의 모험>을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 본 글이므로, 독자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읽어 보며 새로운 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
- ④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는 일은 글쓰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바람직한 독서 태도이다.
- ⑤ 현재 개발되는 로봇들과 관련한 로봇 공학의 동향을 조사해 봄으로써 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다.

9 ㉠은 자유를 누리다가 몸을 다치기까지 하는 피노키오의 모습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다. 피노키오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거나 실수를 저질러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노키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과 제한이 있음을 인식해야 했다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피노키오는 너무 많은 자유를 함부로 누리려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피노키오는 좌절, 희망, 고뇌 등의 인간적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 ④ 피노키오는 도덕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였다.
- ⑤ 피노키오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10 인간과 다른 로봇의 존재가 인간에게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야만 로봇을 새로운 개별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 로봇이 인간과 닮은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과 다른 존재인지부터 판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로봇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오답 풀이

- ① 인간이 로봇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②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 ③ 현재 제시된 글에서는 로봇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④ 인간이 로봇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존재론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다.

▶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 빈센트 반 고흐 ·



내용 확인하기

122~124쪽

1 ④ 2 ④ 3 행하고 창조하는 것 4 ⑤ 5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 6 ⑤ 7 ② 8 ③ 9 ② 10 ⑤

1 고흐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림을 돋보이게 할 배경과 액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 <감자 먹는 사람들>은 어두운 실내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고흐는 그림이 어두우므로 금빛 틀에 끼우길 권장하였다. 또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다고 설명하였다.

3 (가)의 마지막 문장에 작품 창작에 대한 고흐의 열의가 드러난다.

- 4 ㉠ 정직한 육체노동과 정직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자연스러운 농민의 옷차림으로, 본질적인 농민의 모습을 나타낸다.
 ㉢ 농촌의 일상적인 음식 냄새로, 자연스러운 농민의 삶을 의미한다.
 ㉣ 농촌의 일상에서 나는 냄새로, 농민의 삶을 대표하는 소재이다.
 ㉤ 도시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소재이다.
- 5 (다)의 세 번째 문단에 등불 아래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 삶’이란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 6 ㉢은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고희가 예술을 통해 감화시키고자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화가일 수도 있고 단순히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평의 대상이 되거나 관례에 따라 그림을 그리라는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 7 ㉡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므로 비판적 읽기를 위한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희는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정직한 삶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8 고희는 그림을 친구에게 가져가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려고 한다. 이는 친구의 조언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 9 테오는 이 편지를 읽고 고희의 이사가 잘 되었는지, 유화에 대한 친구의 의견이 어땠는지 묻거나 고희의 생활고를 염려하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에서 고희가 유화를 그리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물감이 섞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테오가 이에 대해 굳이 다시 묻지는 않을 것이다.
- 10 고희에 대한 당시의 평판을 조사하는 것은 글을 깊이 읽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평가

126~129쪽

1 ㉤ 2 ㉣ 3 ㉣ 4 농촌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곱게 다듬어 그리면 안 된다. 5 ㉤ 6 ㉤ 7 ㉢ 8 ㉤ 9 ㉤ 10 ㉤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진솔, 정직, 반성 [2단계] 진솔, 반성 [3단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농민과 농촌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그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림은 그저 아름다운 장식물이어서는 안 되고,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테오에게 고희는, 그림을 보내 주고자 했지만 현재 그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희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 테오가 한 일을 점검하고 있지 않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오답 풀이

- ① 농민들의 정직한 삶을 표현하고 싶다는 창작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작품 창작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일 등 자신이 생각한 바를 솔직히 토로하였다.
 ③ 테오는 고희의 동생으로, 이 글은 친밀한 청자에게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는 편지이다.
 ④ 작품을 받으면 금빛 틀에 끼워야 더 보기 좋을 것이라며 유의 사향을 설명하고 있다.

- 2 농민들이 자신들을 그린 그림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언급한 바가 없다.

- 3 이현은 고희의 초기와 말기의 작품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감상해야 하는지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용준은 고희의 삶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뒤에 글을 다시 읽으며서 고희의 고뇌 등을 발견하며 더 심화된 독서를 할 수 있었다.
 ② 은채는 고희의 색채 감각, 지우는 고희의 정서 상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을 읽으며 이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③ 이준은 글의 내용 가운데 달걀 흰자위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⑤ 용준은 처음에는 고희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책을 읽은 뒤 고희의 삶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 4 ㉠에서 ‘향수 냄새’란 도시의 생활을 대표하는 소재로서, ㉡은 농촌을 그린 그림에서 도시의 느낌이 난다면 좋은 그림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희는 농민들의 투박한 손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 손으로 노동하고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을 다듬거나 미화하여 그린다면 농민이 삶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5** 고희는 정직한 육체노동을 정직한 삶과 연관 짓고 있을 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았다. <보기>에서도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의 즐거운 기색을 언급한 것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라고 한 것에서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고희는 육체노동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보기>의 화자 역시 농민들이 발맞추어 타작하는 장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고희는 감자를 캐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보기>의 화자는 타작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 ③ 고희는 농민의 투박한 손을 있는 그대로 그려 냈으며, <보기>의 화자는 '검게 탄 두 어깨'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였다.
- ④ 고희는 농민의 삶이 도시인들에게 정직한 삶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바랐으나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보기>의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바라보며, '벼슬길'을 해매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 6** 고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친구에게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지 묻는 등 좋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듣는 열린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고희는 절대로 농민들을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농민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는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이 제공하는 삶의 진실을 이미 농민들이 체득하고 있으니 그들은 교양을 위한 교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농민들은 교양을 쌓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 ③ (마)에서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화가들도 꾸준히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가)에서 자신의 작품을 졸작이라고 생각할 포르티에나 뒤랑 뤼엘과 같은 이에게도 자신의 작품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 7** 고희는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이 삶에 깨우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③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① 고희는 삶의 모습을 사실에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② 고희는 구체적인 삶의 단면을 그려 냄으로써 깨우침을 전하고자 하였다.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그린 것은 아니다.
- ④ 고희는 농민을 미화해서 그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 ⑤ 예술 그 자체의 숭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끔 만드는 예술을 추구하였다.

- 8** 감자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삶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보기>의 작품은 감자를 먹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감자 먹기' 자체가 희망을 주는 행동은 아니다. 마지막 줄에 '감자 먹어야 할 시절'이란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련을 뜻하는 것으로, 큰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시련이 다가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9** 고희는 평단의 가혹한 비평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예술관을 끝까지 관찰하였고,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보기>의 활화산 밴드는 평단에서 비평조차 듣지 못했고, 중간에 해체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하지는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10** 고희는 농민이 자신의 손으로 먹을 것을 일구어 나가는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림을 통해 이를 모두에게 보여 주고자 한 것이지 농민의 비참한 삶을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포르티에가 그림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
- ② 뒤랑 뤼엘에게도 그림을 보여 주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③ 뒤랑 뤼엘은 소묘를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졸작이라고 평가할 것이지만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 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밀레와 드 그루 등은 주위의 혹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계속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희에게 의지가 되는 화가들이다.

11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고흐는 지금의 화가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지는 뒤랑 뤼엘에게 혹평을 듣더라도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고흐는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농민과 농촌의 삶은 ‘진솔하고 정직하게’, 농민의 관점에서 그려야 하고, 그러한 그림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진솔하고 정직한’ 태도로 농민을 그려야 한다는 고흐의 주장을 드러내고,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예술의 사회적 효용을 분명히 밝히며 충고한 경우	5점
‘지금의 화가’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이지만 ‘진솔하고 정직한’ 태도로 농민을 그려야 한다는 고흐의 주장이나 ‘진지한 반성’이라는 예술의 사회적 효용에 관한 서술 중 하나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	3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고흐의 주장 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예술의 사회적 효용 가운데 어느 한쪽만 언급한 경우	1점

02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 미셸 푸코 ·



내용 확인하기

131~133쪽

1 ① 2 ⑤ 3 ⑤ 4 ② 5 ① 6 ③ 7 ⑤ 8 ② 9 ①

- 1 일망 감시 감옥은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중심에 탑이 있는데,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 2 일망 감시 감옥의 수감자에게는 감시자가 보이지 않지만, 감시인은 독방의 바깥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수감자의 행동을 낱알이 확인할 수 있다.

3 지하 감옥에서는 수감자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시자 역시 수감자와 소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망 감시 감옥은 수감자 간의 정보 교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시자만이 수감자를 볼 수 있고,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으므로 수감자는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비가시성’은 수감자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감자끼리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얻는 효과를 찾으려 한다.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수감자가 독방에 있으므로 내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옆방의 수감자와 분리되어 있을 뿐, 감시자에게 늘 감시당하는 상황이므로 개인으로서 내밀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5 일망 감시 감옥 구조에서는 수감자가 감시자를 바라볼 수 없다. 수감자는 감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감시자가 바뀐다고 해도 권력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6 일망 감시 구조는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시설이다. 이 구조를 활용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수감자가 감시의 권력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7 ㉠의 ‘그’는 피감시자(감시를 당하는 사람)이다. 권력관계는 ‘감시자 - 피감시자’ 간의 관계인데, 본래는 외적인 관계지만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피감시자가 감시자를 볼 수 없으므로 감시자의 물리적 실체는 흐려진다. 하지만 감시의 시선은 유지되므로 수감자는 스스로 자신을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행동을 검열하게 된다. 그래서 수감자가 피감시자이자 감시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일인이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8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작용하지만, 이러한 권력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행사된다.

9 글의 내용을 확장하며 읽기 위한 질문은 글의 신뢰성·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하는 것, 글쓴이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이 있다. ①의 질문은 본문에 답이 제시되어 있다. 일망 감시 구조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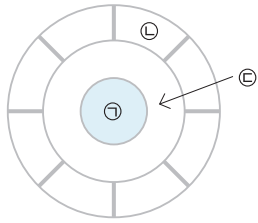
소단원 평가

135~139쪽

1 풀이 참조 **서술형은 이렇게** 일망 감시 감옥은 중앙의 탑 속에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독방 안에는 수감자들을 한 명씩 감금한다.

2 ④ 3 수감자들을 고립된 개인으로 만들으로써 통제가 더욱 수월해진다. 4 ② 5 ② 6 ③ 7 ② 8 ③ 9 ㉠ 권력자 ④ 수감자 10 ③ 11 ② 12 ④ 1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내면화, 감시자 [2단계] 자각, 내면화, 자동, 감시자, 친구나 방문객 [3단계] 권력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감시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자신이 감시당하듯 행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수감자가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권력을 비가성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예컨대 감시인이 부재중일 때 방문객이 그 역할을 대신해도 감시 권력 체제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① 15 ③ 16 ④ 17 ③ **서술형은 이렇게** 최명길은 '여기'가 화해해야 할 자리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 김상헌은 '여기'가 싸워야 할 자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 1 감시자(㉠)는 중앙의 탑에서 독방을 바라본다. 수감자(㉡)들은 각각 독방에 분리 배치되어 있다. 수감자의 독방에는 바깥쪽에서 중앙탑을 향해 빛(㉢)이 들어온다. 이를 그림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 지하 감옥의 감시자가 어디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글에 서술된 바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일망 감시 감옥에 빛을 제공하는 이유는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 수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서임을 설명하였다.
 ②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수감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감자를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관계임을 설명하였다.
 ⑤ (나), (라)에서 일망 감시 감옥이 지하 감옥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3 '고립된 개인, 통제의 수월성'이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도록 서술한다.

- 4 가시성은 감시자가 수감자에게 강요하는 특성이므로 강요

하는 쪽이 권력의 우위에 선다. 비가시성은 수감자가 서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특성이므로 이를 획득한다고 해도 권력관계의 우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은 감시자가 수감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특성이고, ㉡은 각각의 독방에 수감된 수감자 모두에게 강요되는 특성이다.
 ③ ㉠은 감시자가 수감자를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은 수감자들이 서로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④ ㉠과 ㉡은 일망 감시 감옥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특징이다. 중앙의 감시탑은 감시자에게 수감자가 보여지는 가시성을, 독방은 수감자 간의 비가시성을 구현하게 된다.
 ⑤ ㉠은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권력의 자동화에 이바지하고, ㉡은 수감자를 고립시킴으로써 질서를 부여하고 통제하기 쉽게 한다.

- 5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은 감옥이므로 모두 수감자를 감금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수감자의 공간에 빛을 공급하는 일망 감시 감옥과 달리 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은 수감자를 어둠 속에 은폐한다.

오답 풀이

- ㉠ '고립화'는 일망 감시 감옥만의 특징이다. 일망 감시 감옥은 수감자를 서로 격리 수감한다.
 ㉡ 지하 감옥은 감시자가 직접 오가며 감시하기 때문에 감시자가 은폐되지 않는다. 반면, 일망 감시 감옥은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 없어서 감시자가 은폐된다.

- 6 '권력'이라는 무형적·추상적인 개념을, 그 원리가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 '일망 감시 감옥'이라는 대상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권력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시 권력을 실제 적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②, ④ 여러 대상의 사례를 종합하거나 특질을 분석하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는 권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감옥에 비유하여 설명했다기보다는, 일망 감시 감옥에 권력의 원리가 구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일망 감시 감옥은 단순한 비유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이 구체화된 대상에 해당한다.

- 7 (가)에서 일망 감시 감옥은 감시자의 성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감시의 효과가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이로운 시설이라고 하였다.

- 8 이 글은 일망 감시 체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방식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감시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다루지 않았다.
- ② 일망 감시 구조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언급한 바가 없다.
- ④ 감시 권력을 느낀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한 바가 없다.
- ⑤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다.

9 일망 감시 감옥을 현대 사회에 대응하였을 때, 감시자는 권력자, 수감자는 시민에 해당한다.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에서 권력을 갖고 상대를 통제하는 이가 감시자이고, 감시자의 권력에 종속되는 이가 수감자이기 때문이다.

10 이 글은 ‘권력자’를 ‘감시자’에, ‘시민’을 ‘수감자’에 대응시키며 생각하였고, ‘권력자 → 시민’의 일방향적 권력관계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의 로스앤젤레스 사례는 시민이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시민 → 권력자’로의 역방향적 견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감시당하거나 일반인이 권력의 횡포를 감시한 사례를 다루고 있을 뿐, 감시를 통해 얻게 된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② <보기>에서 감시자를 확인해야만 감시 권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보기>의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는 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비디오키타들이 있는 위치에서는 그 카메라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작용하는 권력이 있으므로, 감시자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이 글과 <보기>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도 감시자가 누구냐에 따라 감시 권력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⑤ 이 글의 (다)에서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말하여 감옥 외에도 일망 감시가 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1 지혜는 글에 인용된 자료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글의 사례가 부족하니 자료가 좀 더 많았다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선우는 물건 진열 방식과 소비자의 구매 욕구 자극에 관한 글을 읽었던 경험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익숙하게 읽어 냈으므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은 것이다.
- ③ 민규는 자신은 감시에 저항할 것 같으면서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지우는 ‘그렇구나.’라고 말하며 민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나, 자신은 감시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 같으며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⑤ 민규와 지우는 자신이 감시를 당한다는 상황을 상상해 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12 ④의 ‘갱신’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④의 ‘갱신’은 법률 용어로, 법률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뜻한다.

오답 풀이

- ① ㉠ ‘행사’는 ‘어떤 일을 시행함. 또는 그 일’이라는 뜻이다.
- ② ㉡ ‘간파’는 ‘숙내를 꿰뚫어 알아차림.’의 뜻이다.
- ③ ㉢ ‘예속’은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이라는 뜻이다.
- ⑤ ㉤ ‘몽상’은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함. 또는 그 생각’의 뜻이다.

1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가)의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와 (나)의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 권력관계가 내면화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한다. 또한, (가)의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권력이 비개성화된다는 말의 의미를 찾고, 본문의 다양한 예시 가운데 한 가지 정도를 골라 사례를 제시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권력의 자동화에 관한 정보를 인과적으로 배열하고, 권력의 비개성화의 의미와 사례를 든다. ㉠ 관리 책임자가 없다면 친구나 방문객조차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권력의 자동화가 인과적으로 설명되고(3점), 권력의 비개성화의 의미와 사례가 알맞게 서술된 경우(3점)	6점
권력의 자동화, 비개성화의 의미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인과나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점
인과나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권력의 자동화, 비개성화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권력의 자동화를 설명할 때 권력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어 쓸 것. 내면화하므로 자동화된다는 정도의 서술은 인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아야 한다. 또한 (1), (2)와 같은 작은 문항이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하나의 짧은 문단으로 연결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서술한다.



- 14 청나라 군대에 둘러싸여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 나아가 싸울 것인지 물리나 화친을 할 것인지 갈등하는 내용을 인물의 대화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인물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물 스스로 자신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장면 전환 없이 한 공간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상황 전체를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변화는 없다.
 ⑤ 갈등의 상황을 암시할 만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한 바 없다.

- 15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자기의 주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김상헌은 적의 문서를 불태워 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보이자고 주장하였으므로, 군병들의 부화뇌동을 우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답 풀이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면이 적에게 둘러싸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을 에워싼 뒤 글을 보내온 상황에 적절하다.
 ②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표현으로, 대항과 화친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임금의 상황을 말해 준다.
 ④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을 대하기에 힘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성안의 백성들이 피폐하므로 청나라 군사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최명길의 의견을 잘 표현한다.
 ⑤ 본말전도(本末顛倒): 중심과 주변부가 바뀌어 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화해를 원하는 최명길에게 김상헌은 싸움이 본(本)이고 화해가 말(末)인데 이 둘을 뒤집어 말한다고 반박하였다.

- 16 역사적 사건을 다룬 글을 읽을 때는 당대의 맥락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이 좋다. ④의 경우 생사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이 현대의 것과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으므로 적절한 감상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현대의 토론에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동·서양 모두 과거의 설득 전략 가운데 감정적 호소가 중요한 부분일뿐더러 현재 전쟁에서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인물들의 감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비민주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군주제 사회에서의 의견 결정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감상이다.
 ③ 임금이 토론의 독립적인 주재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결정권자이

며, 임금과 신하는 권위적인 수직 관계였음을 고려하지 않은 감상이다.

- ⑤ 임금의 덕은 전쟁의 승패와 객관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금의 덕이 평안한 정치와 직결된다고 본 유학자들의 관념을 고려하지 못한 감상이다.

- 17 최명길은 현재 화친을 해야 할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상헌은 나아가 싸워야 할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내용 확인하기

140~144쪽

1 ㉠ 슈퍼마켓 ㉡ 대형 할인점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섬. 11 (A) ㉠, ㉡ (B) ㉢, ㉤, ㉥ 12 도시의 성좌 13 ㉢ 14 ㉢

- 1 구멍가게는 슈퍼마켓의 규모와 세력에 밀려났으며, 슈퍼마켓은 다시 대형 할인점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2 편의점은 대형 할인점이 슈퍼마켓을 위협하는 사이에 동네마다 등장한 가게로, 대형 할인점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다.
 3 편의점은 인구 밀집된 지역에 주로 들어서지만, 25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4 편의점 경쟁력의 원천은 규모의 경제, 유연화 전략 두 가지가 있다. 유연화 전략은 동네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욕구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유연화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매장 숫자를 그때그때 바꾸기는 쉽지 않으며,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도 아니다.
 5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상품을 빛나 보이게 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오가는 손님들을 안심시키며 치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낮에도 환하게 느껴질 만한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차분함보다는 활기참을 경험하게 해 주는 공간으로, 밤에는 화려하게까지 느껴진다고 하였다.

6 ‘야경꾼’이란 밤에도 자지 않고 경계를 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24시간 영업하면서 밝은 불빛을 비추는 편의점이 치안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빗대어 야경꾼이라고 말하고 있다.

7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본 것은, 번거로운 인간 관계를 꺼리는 도시인들의 감각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편의점의 점원은 손님이 말을 걸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무관심하게 대응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도시인들이 많다. 그래서 도시인들의 인간 관계 감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한 것이다.

8 편의점은 ‘주인 - 고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도, 고객의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관심을 기울여 수집한다.

9 전문가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제 살 깎기’, ‘올며 겨자 먹기’ 등의 관용구를 사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다.
- ② 편의점 수익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업무의 종류, 당혹스러운 손님의 사례를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판결과 ‘가맹점 - 본사’ 간의 갈등 상황을 분석한 뒤, 향후 가맹점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0 편의점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자랑하던 사업이라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본사는 예상 매출액을 크게 늘려 개업을 권장하였고, 개업 허가를 많이 해 주어진 가까운 곳에도 여러 편의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때문에 결국 수익 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11 (A): ㉠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기업 간 경쟁의 부담을 개인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모두 ‘본사 - 가맹점’ 간의 문제에 속한다.

(B): ㉢ 저임금 장시간 노동, ㉣ 까다로운 손님맞이, ㉤ 업무의 가짓수가 많은 것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겪는 문제에 속한다.

12 글쓴이는 편의점을 고독한 도시에 밝게 빛나는 별, 즉 ‘도시의 성좌’라고 비유하였다.

13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어 소비자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장소이다.

오답 풀이

- ① 온라인을 배회하던 이들도 출출하면 밖으로 나와 직접 편의점을 찾는다.
- ② 도시인들은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 방처럼 친밀하게 느낀다.
- ④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가 라틴어 ‘함께 있음’에서 유래하였다.
- ⑤ ‘성좌’란 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점은 도시의 힘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14 편의점이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낸다는 것은, 편의점이 소비자들의 습관을 꼼꼼히 기록하는 데서 나아가 소비자의 욕구를 예측하고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나중에는 편의점의 시스템에 길들고 소비 시스템이 제공하는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소단원 평가

146~149쪽

1 ③ 2 ④ 3 편의점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게 하였다. **4 ① 5 ① 6** 어두운 도시에 편의점 내부의 환한 조명이 밖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이다. **7 ③ 8 ④ 9 ③ 10 ③ 11 ⑤**
서술형은 이렇게 무관심의 배려란 점원이 고객에게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꺼리는 도시인들의 감각과 잘 맞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이를 선호한다.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정보, 영업 전략, 정보 [2단계] 고객, 이윤, 주체성 [3단계] 편의점이 ㉠과 같이 하는 이유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편의점의 영업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편의점은 고객의 소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어 더욱 은밀하게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고객은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편의점의 소비 제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체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이 글은 새로운 소비 시설(편의점)이 성장한 요인을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에서 찾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소비 시설의 변천은 다루고 있지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소비 시설을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았다.



④ 소비 시설이 변하면서 인간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가 개인화되면서 편의점이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⑤ 세대, 성별, 문화에 따른 소비 시설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가. 편의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나열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편의점 매출액을 수치로 제시하여 편의점이 급격히 성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영업시간 때문이다’와 같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편의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초점화하여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라. 편의점의 성장과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

3 ‘유연화 전략’은 동네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이 큰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많은 재화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4 구멍가게는 슈퍼마켓과, 슈퍼마켓은 대형 할인점과 규모와 가격 경쟁을 벌였다. 대형 할인점이 슈퍼마켓을 밀어내며 동네의 소비 시설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 편의점이 생겨난 것이므로, 슈퍼마켓·구멍가게와 편의점이 규모 경쟁을 벌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5 도시인들은 지침에 따르는 점원의 행위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② 편의점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검색하고 관리한다.

③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도시인의 곁에 있는 ‘도시의 성좌’로 도시인들에게 위안을 준다.

④ 볼록 거울을 통해 점원은 편의점 전체를 바라보며 도난을 막으려 한다. 이처럼 점원의 시선이 곳곳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은 고객이 안심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⑤ 편의점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본사-가맹점’ 간의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수익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6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오아시스처럼, 어두운 도시에 편의점의 환한 조명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7 편의점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심코 편의점이 제안하는 소비 양식에 휩쓸리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결정하고, 상품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상품의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의 습관을 알뜰히 빚어내는’이라는 구절은 편의점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소비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처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편의점이 구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의점이 제공하는 방식에 맞게 고객의 소비 방식이 달라질 것이므로 소비자로서 주체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②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욕망을 언제든지 충족할 수 있다. 이는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동시에, 욕망을 조절하지 않고 편의점에 의존하게 하기도 한다.

④ 점원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점원과 대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⑤ 편의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 편의를 위해 고생을 감내하는 주인과 점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8 (나)에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에 대해 일부 점주들이 일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와의 계약 조건을 바로 잡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불공정 계약을 대하는 가맹점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글쓴이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편의점의 성장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글을 읽는 첫걸음이 된다.

② (나)는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으로 글에 암시된 새로운 요구 등을 추론하는 것이다. 파출소 역할을 겸하는 해외 편의점의 사례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이 사회적 시설로 확장될 가능성을 은연중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편의점이 심야에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서술하였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편의점은 도시화·개인화의 맥락 속에서 나타난 소비 시설이다. 현대

사회의 소비 시설은 현대인의 특징을 반영하는 만큼, 소비 시설과 삶의 양식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편의점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 9**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편의점에 단골이 없는 이유는 점원이 고객에게 무관심의 배려를 보이며 고객을 익명의 존재로 남겨 두기 때문이다.
- ② 24시간 영업을 하는 만큼 주인 혼자서 가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삼각 김밥을 사는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 ⑤ 즉석 식품점과 편의점은 모두 표준화된 고객 응대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10** 편의점의 효율적 소통은 고객을 익명의 존재로 둔 상태에서 규칙에 따라 응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 상담 창구는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이므로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교류하며 점원 또는 상담원과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건강 상담을 받는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편의점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추어 영업 전략을 짜는 만큼, <보기>처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노인에게 맞는 인간관계 감각에 따라 응대 방식을 바꿀 것이다.
- ② 단골은 '점원 - 고객' 간의 친근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보기>와 같이 노인 복지를 표방한 이상 편의점은 노인들을 익명의 존재에서 개성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편의점에 친근감을 느낀 노인들이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다.
- ④ 편의점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건강 상담을 받게 된다면 고객의 건강 정보 역시 축적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편의점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갖추어 영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사는 방식도 자세히 조사하는 것처럼, 노인용 간식과 같은 품목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소비 유형을 꼼꼼하게 분석할 것이다.

- 11** '무관심의 배려'란 고객에게 무관심을 보여 주는 것인데,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꺼리는 도시인들의 감각에 잘 맞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성장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

오답 풀이

- ① 백화점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대형 할인점은 점원이 소비자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에서 편의점과 유사하다.

- ② 점원은 손님이 말을 걸 때만 말(대답)을 한다. 따라서, 살 것을 정하지 않은 손님도 점원이 말을 걸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다.
- ③ 구멍가게가 친밀한 교류와 소통을 장점으로 삼았던 반면에, 편의점은 이러한 요소를 버리고 깔끔한, 익명의, 번거롭지 않은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 ④ 편의점은 친근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맞게 '점원 - 고객' 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골이 없을뿐더러 익명의 고객을 단골처럼 대하지도 않는다.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편의점은 소비자가 물건값을 계산할 때 성별과 나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시 티브이(CCTV)를 통해 성별과 나이에 따른 소비 행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본사에 전송하여 손님의 구매 행태 등을 분석, 이를 영업 전략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편의점 본사에서는 고객에게 수집한 구매 정보를 통해 고객이 무의식 중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 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를 지적할 수 있고, 고객이 편의점의 소비 제안을 선호한다고 착각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체성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의 이유를 바르게 찾아 적은 경우		1점
㉠을 통해 편의점이 얻는 이익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점
부분 점수	편의점이 얻는 이익을 서술하였으나 도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경우	1점
㉡과 관련해 고객이 유의할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점
부분 점수	고객이 유의할 점을 서술하였으나 도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경우	1점

[감점 피하기 tip] ㉠의 이유를 묻는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 얻게 될 이익이나 고객이 유의할 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확장하여 내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명확히 밝히되,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03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 이은희 ·



내용 확인하기

151~155쪽

1 ⑤ 2 ② 3 ② 4 ① 5 ③ 6 ③ 7 ② 8 ② 9 ③ 10 ② 11 젊은 학자인 윌리스가 보낸 연구 결과가 자신이 20여 년간 연구해 온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12 ⑤ 13 ④ 14 ④

- 1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뛰어난 개체가 남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진화의 결과일 뿐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 당연하다거나, 뛰어난 개체를 고르기 위해 진행된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하였다.
- 2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생물이 진화하듯이 사회가 진화한다고 보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즉,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체계화한 것이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 3 스펜서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꿀벌이나 개미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곤충으로 이를 사회적 곤충이라고 하고, 인간에 대응된다. 따라서 ㉠에는 ‘사회적 곤충, 인간’이 들어갈 수 있다. 꿀벌이나 개미가 이루는 집단은 유기체가 아니면서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초유기체’라고 부른다. 인간 사회 역시 ‘초유기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사회, 초유기체’가 들어갈 수 있다.
- 4 스펜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하였다.
- 5 가. 다윈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다윈이 사용했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 또한 《종의 기원》의 초기 판본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으며, 제5판에서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끌어다 썼음을 밝힘으로써 이 역시 다윈이 한 말이 아님을 알려 주고 있다. 나. 다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독자에게 글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나. ‘변이, 적자생존, 자연 선택’ 등 다양한 개념이 나타나지만, 이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통해 이해하게 하였을 뿐, 직접 정의하지는 않았다.
- 르. 진화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비교하는 두 가지 대상이 나타난 바 없다.

- 6 ‘변이의 다양성’이란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화가 뛰어난 개체, 이상적인 개체를 남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진화의 방식도 다양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②, ④ 진화론에서는 생명체 간의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 7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핀치가 한 가지의 먹잇감만을 먹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핀치가 다양하게 변이하면서 분화되었기 때문에 핀치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핀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 8 ㉠은 약자가 강자에게 당연히 먹혀야 하며, 환경에 적합한 존재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강자와 약자, 살아남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우열 관계를 전제한다. ㉡에서는 생명체 간의 우열 관계를 논하지 않고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주목한다. 예컨대 핀치의 경우, 먹잇감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주삿바늘 같은 부리가 지렛대 모양의 부리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 9 ‘공생 진화론’은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찾는다는 이론이다.
- 10 하나의 생물 종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은 변이이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물 종이 힘을 합쳐 살아가는 것이다.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12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온정, 배려, 도덕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이 갖는 장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 뒤에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 글에서 ㉠은 경쟁과 배제를 암시한다.
- 13 이 글에서는 진화론을 설명하며 그 주요 내용이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생명체가 태곳

적부터 체득한 방식은 다양성, 화합, 공존을 의미한다.

- 14**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잘 모르는 분야는 책이나 인터넷 등을 참고하며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쓴이와 다른 자기만의 비판적 관점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반박부터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157~159쪽

1 ④ 2 ② 3 ① 4 ④ 5 ⑤ 6 ⑤ 서술형은 이렇게 적자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우수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관점인 반면, 자연 선택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지만 이는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7 ③ 8 ④ 9 ④ 1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자연 선택, 다양성 [2단계] 경쟁, 공존, 변이, 자연 [3단계] 공통점은 생명체들이 경쟁보다는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다윈의 진화론이 단일 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로 공존과 진화의 방식을 설명한다면, 공생 진화론은 다른 종과의 공존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화에 관해 설명한다.

- 1** 이 글은 ‘진화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나열하고, 진화의 개념을 꼼꼼히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는 본디 스펜서가 사용한 것이며, 훗날 다윈의 책에서 이를 채택하게 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글쓴이는 ‘적자생존’보다는 ‘자연 선택’이 다윈의 핵심 용어였음을 강조한다.
- ② 진화론의 단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 ③ 이론에 대해 사람들이 지닌 선입견이나 편견을 비판하고 있지만, 진화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지는 않았다.
- 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두 이론을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 2** (라)에 따르면 다윈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살아남은 강자가 우월하다거나 약자를 수탈·억압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진화론은 생명체 간의 우열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였다. 열등한 생명체가 고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지향성과 우열 관계를 전제한 발언이므로 진화론을 오해한 내용이다.
- ③ (가)에서 진화의 결과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이 남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 생명체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 행위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 ④ (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스펜서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다윈이 아니라 스펜서이다. 스펜서는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며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의 먹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 ⑤ (다)에서 자연 선택에 따르면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라)를 보면 그 과정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거나 의도가 개입하지는 않음이 설명되어 있다.

- 3** <보기>는 글쓴이가 지적하는 진화론에 대한 오해로, ‘더 나은 존재’, ‘이상적인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가)에서 글쓴이는 생명체의 진화 결과 뛰어난 개체가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진화에서는 우연적인 변이가 쌓임으로써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훗날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 ③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쌓인 것으로 우연적인 과정이다.
- ④ 진화론은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다.
- ⑤ 진화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 4** <보기>는 변이의 개념이다. 변이 중에는 유전자 변화에 의한 변이 외에도 외부 요인에 의한 환경 변이가 있으므로 태어난 이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체들은 모두 조금씩 변이하게 된다. 따라서 타고난 형질이 환경에 잘 맞지 않더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부모-자식 간에 유전자를 공유하면서도 다른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은 변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어미 고양이는 유성 생식을 하는 동물이므로, 암수 유전자가 섞이면서 조금씩 다른 개체를 낳게 된다.
- ③ 개체 간에 변이가 없이 모두 같은 형질을 가진다면 특정한 약점에 노출될 경우 모든 개체가 죽을 수 있다.
- ⑤ 기존의 벼와 병충해에 강한 벼는 서로 유전자를 공유하면서도 다른 형질을 갖게 되었으니 변이가 일어난 것이지만, 품종 개량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를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라)에서 글쓴이는 다윈의 말을 인용하여 자연 선택에 의한 변화 과정에 외부의 힘이 개입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 5 스펜서의 논리에 따르면 단순한 것은 진화가 덜 된 것이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는 이유 역시 단순하고 약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약자 역시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당연히 수탈당하여야 한다. 이처럼 생태계 및 인간 사회에서 약자의 처지에 놓이는 단어들만 묶은 것이 ㉔, ㉕이다.

- 6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과 달리, 자연 선택은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여긴다.

오답 풀이

- ① 적자생존은 진화의 방향성을 전제하지만, 자연 선택은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②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진화의 결과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 선택이다.
 ③ 환경에 적응하며 생긴 우연한 변이들이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 선택이다.
 ④ 적자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살아남은 것이 그렇지 못한 존재를 수탈하거나 억압하는 약육강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7 스펜서는 생물체와 사회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어 생물체의 특성으로부터 사회의 특성을 추리해 내는 유비 추리를 하였다. ④에서는 돼지와 인간이 다른 범주의 존재이지만 신체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돼지에게 약의 효과가 있다.)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사실(인간에게 약의 효과가 있을까?)을 추론하는 유비 추리를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매일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일어날 일을 추론하는 귀납 추리를 하였다.
 ② 친구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세미에 대해 예측하므로 귀납 추리를 하였다.
 ④ 올림픽 선수들의 사례를 통해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귀납 추리를 하였다.
 ⑤ 강아지의 일반적인 습성을 바탕으로 우리집 강아지에 대해 추론하는 연역 추리를 하였다.

- 8 진화론은 우수한 진화, 열등한 진화를 구분하지 않았고, 어떤 곤충이 더 구하기 쉽고 어려운 먹잇감인지에 대해서는 글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물체인데 (라)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새로운 생물 종이냐고 생각될 만큼

조류-균류의 공생 관계가 밀접하다는 언급이 있다. 즉 공생이 또 하나의 생물 종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의 소의 배설물, 악어 이빨에 끼인 찌꺼기 등의 사례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생물체에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핀치가 다양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은 핀치가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했음을 뜻한다.
 ⑤ (다)에서 자원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물 종들이 특정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 9 ㉔는 포도당, ㉕는 수증기이다. 조류와 균류는 이를 한쪽이 독차지하기 위해 경쟁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 가지며 공생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포도당, ㉕는 수증기(물)이며, 조류와 균류는 이 둘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면서 마치 하나의 생물 종처럼 지낸다.
 ② 포도당은 조류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수증기는 균류가 생성해 내는 것은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흡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③ 균류가 포도당을 받지 않거나, 조류가 수증기를 받지 않으면 둘 다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⑤ 포도당과 수증기(물)는 조류와 균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조류는 포도당이 필요 없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라)를 보면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류가 포도당을 사용하지만 균류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균류 역시 물이 필요 없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악어-악어새의 경우 악어의 이빨에 낀 찌꺼기는 악어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자원이다.

10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키워드 발견**

- 공통점: 상반된 의미의 키워드인 '경쟁'과 '공존'은 <조건>에서 주어졌으므로 두 이론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을 통해 진화론은 경쟁보다는 공존을, 공생 진화론도 경쟁보다는 상부상조를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차이점: 이 글에서 두 이론이 다루는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론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다윈은 본디 하나의 종이었던 핀치가 진화 과정에서 다양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마굴리스는 여러 생물 종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 공통점: 진화론은 핀치의 사례를 통해 하나의 종이 다양하게 변이해 옴으로써 생물체가 경쟁보다는 공존을 추구한다고 설명하였고, 공생 진화론은 지의류의 사례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이 공생 관계를 이루며 경쟁보다는 공존을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 차이점: 진화론은 하나의 종인 핀치가 다양하게 변이함으로써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공생 진화론은 여러 생물 종의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보면서, 균류와 조류의 공생 생물인 ‘지의류’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경쟁’, ‘공존’이라는 두 키워드를 모두 사용하여 공통점을 바르게 진술한 경우		2점
차이점에서 진화론이 단일 종 내의 변이를, 공생 진화론이 여러 생물 종간의 공생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 경우		3점
부분 점수	두 이론이 다루는 대상 차이에 관해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2점
	진화론과 공생 진화론의 특성을 각각 서술하였으나, 차이점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경우	1점

[감점 피하기 tip] ‘이론이 다루는 대상’을 서술할 때는 개별 사례를 쓰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일반화하여 쓰도록 한다. 진화론이 핀치를, 공생 진화론이 지의류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서술한 경우, 잘못된 내용을 쓴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진화론은 단일 종을 다루지만, 공생 진화론은 아니다’처럼 ‘다르다, 아니다.’ 등의 판정 서술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주의다. 이 경우 공생 진화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술 부족 또는 오답으로 처리하게 된다.

▶ ‘우리’를 위한 기술, 적정 기술 · 지은지 ·



내용 확인하기

160~163쪽

1 ②, ③ 2 ⑤ 3 적정 기술 4 ㉠, ㉡, ㉢ 5 ④ 6 ㉠ 최소/적은 ㉠ 현지 ㉢ 지역 주민 7 ④ 8 ③ 9 ㉢ → ㉡ → ㉠ → ㉠ 10 ② 11 ①, ④ 12 안경이 비싸기 때문에, 검안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3 ① 14 ③ 15 ②

1 빈곤층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발전소를 짓고 마을까지 송전선을 설치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하루 2천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 전기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2 글쓴이는 선진국이 사용하는 최첨단 과학의 경우 전기와 같은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도 소득 대비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빈곤층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빈곤층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한다.

4 ㉠ (가), (나), (다)에서 자문자답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화제를 제시하는 등 문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가)에서 교통비와 식비 지출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노출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다)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처럼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이끌어 감으로써 빈곤층의 문제에 대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유추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유추를 사용하지 않았다.

5 간디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6 ‘중간 기술’이란 적은 비용으로,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7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은 ‘인간적인 온정이 담겨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이다. ‘중간 기술’은 기술 개발자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8 ‘적정 기술’은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므로 열등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9 향아리 냉장고는 두 개의 향아리를 겹쳐 두고, 두 향아리 사이의 빈 곳에 모래를 채운 뒤, 물을 붓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㉔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는다. → ㉔ 두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운다. → ㉔ 모래 위에 물을 붓는다. → ㉔ 작은 항아리에 음식을 넣고 젖은 천을 덮는다.

10 항아리 냉장고는 모래에 부은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11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 때 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고, 물 분자의 결합을 끊어 내려면 다른 액체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냉장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㉔ 물이 기체가 되어 증발하려면 물 분자의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따)에서는 물의 분자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아리 속의 온도를 낮아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㉔ 냉장고에는 온도를 차갑게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12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렌즈, 안경테 등의 상품뿐만 아니라 안경의 초점을 적절히 맞추어 주는 검안사가 필요하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아 가격이 비싼 안경을 구매하기 어렵고, 검안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안경을 구하기가 힘들다.

13 ㉔ 안경을 자주 구매할 만큼 사용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한 번 구매하면 오래 쓸 수 있어야 한다.

㉔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므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모두 필요한데, 도수 조절 안경은 개인에 맞게 주문 제작하는 방식의 안경이 아니므로 두 렌즈를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했다.

오답풀이

㉔ 도수 조절 안경은 검안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안사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안경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㉔ 안경은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지만 시력을 치료하는 물건은 아니다.

14 근시는 빛을 퍼뜨려 주는 오목 렌즈를, 원시는 빛을 모아 주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15 글쓴이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현지의 상황에 가장 잘 맞고 저렴한 적정 기술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단원 평가

165~167쪽

1 ① **2** ② **서울형은 이렇게** 현지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 /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 현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등 **3**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아 만들기 어렵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기술과 비교하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④ **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울형 문제** [1단계] 맞다. 맥반석, 난방비, 재투자 [2단계] • 현지 재료 사용: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인 맥반석 활용 / • 적은 비용: 난방비 절감 / •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 교육에 재투자 [3단계] 지세이버는 적정 기술이 맞다. 왜냐하면 [A]에서 현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세이버는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인 맥반석을 사용한다. 또 기존 기술보다 난방비를 절감하여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감된 연료비를 아이들의 교육비로 재투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적정 기술로 판단할 수 있다. **6** ④ **7** ⑤ **8** ③

1 이현령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다. 적정 기술은 현지에 꼭 맞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기술이 여기저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현령비현령과는 맞지 않는다.

오답풀이

㉔ 어불성설(語不成說)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가난 때문에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㉔ 화중지병(畫中之餅)은 그림의 떡이라는 뜻으로, 소용이 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빈곤층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㉔ 급전직하(急轉直下)는 사태나 정세의 변화가 급격히 바뀌어 해결이 가까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개발 도상국에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㉔ 인지상정(人之常情)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온정을 의미한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㉔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기술’, ㉔는 ‘중간 기술’, ㉔는 ‘적정 기술’이다. ‘중간 기술’은 간디의 영향을 받아 현지인들이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중시한 것으로, 생산량을 적게 하거나 적은 사람들만이 이익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오답풀이

① 지역 중심의 작은 기술은 인도의 각 마을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적정 기술 역시 현지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자립을 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중간 기술'은 최소의 비용과 현지화를 주요 조건으로 삼았고, 적정 기술은 그 외에도 지켜야 할 다양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 ④ '중간 기술'은 기술의 수준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열등하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적정 기술'로 이름이 바뀌었다.
- ⑤ '적정 기술'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어 환경 보호를 고려하였다.

3 '적정 기술'은 많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부족함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충분하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자에게 적정 기술은 불편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첨단 기술과 달리, 적정 기술은 제한된 재료와 자원으로 만들어 낸 것이어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적정 기술의 예로 들 수 없는 것은 ㉠이다.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인데, ㉠과 같은 기술은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적정 기술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방법이 간단하며, 특정 분야의 지식 없이도 사용자가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어디에든 휴대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지식 없이도 누구나 상황에 맞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 놀이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특별한 과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공을 차고 놀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보기〉가 적정 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의 조건들을 살펴야 한다. [A]의 조건 가운데 현지의 재료 사용, 간단한 사용법, 지식 없이도 이용 가능할 것,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 등의 항목에 주목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보기〉의 단서들을 모아 본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반석'은 '현지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조건에 맞는다. 또, 난방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적은 비용'이라는 조건을, 아이들의 교육에 재투자된다는 것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조건 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보기〉의 사례는 [A]의 조건 일부를 만족하므로 적정 기술로 판정할 수 있다. 1단계에서 찾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A]와 〈보기〉를 짝지어 가며 근거를 구성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적정 기술 여부를 바르게 판단한 경우 (단,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전체가 오답이 될 수 있음.)		1점
[A]의 조건과 〈보기〉를 연결하여 2개 이상의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A]의 조건과 〈보기〉를 연결하여 근거 1개를 타당하게 제시한 경우	2점
	[A]의 조건과 〈보기〉를 연결짓지 못하고 근거만 제시한 경우	1점

[감점 피하기 tip] 이 문제처럼 두 개 이상의 글을 엮어서 서술해야 할 때는 〈보기〉의 내용이 지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밝혀 서술한다. 단순히 [A]의 내용만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과 현지 재료를 썼으므로 〈보기〉의 사례가 적정 기술이 맞다고 판정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판단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지 재료 사용'으로 판단했는지가 불명확하여 감점당할 수 있다.

6 향아리 냉장고와 냉장고는 똑같이 냉매(물)의 기화열을 이용하지만, 향아리 냉장고가 냉장고보다 더 뛰어난 냉장 능력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냉매는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변하지만, 기체로 변한 냉매를 다시 압축하여 액체로 만들 때는 열이 방출될 수밖에 없다.
- ② 향아리 냉장고는 〈보기〉처럼 증발한 냉매를 다시 압축하여 액체로 바꾸는 과정이 없다. 그래서 〈보기〉는 냉매를 보충하지 않고도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향아리 냉장고는 물이 증발한 뒤 냉매가 없어지므로 다시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 ③ 향아리 냉장고는 압축기, 응축기가 없이 증발기만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도 3주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 ⑤ 향아리 냉장고와 〈보기〉는 냉매(물)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저장고 온도를 낮춘다.

7 ㉠은 실리콘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 액체 렌즈, ㉡은 액체 렌즈에서 실리콘 오일의 양을 빼서 오목하게 만든 오목 렌즈, ㉢은 액체 렌즈에 여분의 실리콘 오일을 주입해 볼록하게 만든 볼록 렌즈, ㉣은 실리콘 오일을 렌즈에 주입하는 과정이다. 안경 다리에 실리콘 오일을 넣어 두었다가 주사기로 조절하여 렌즈에 넣거나 빼면 ㉠, ㉡과 같은 형태로 렌즈의 두께가 바뀐다.



오답 풀이

- ① ㉠은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실리콘 오일을 넣거나 빼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두께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 ② ㉠ 안에 넣는 물질은 실리콘 오일인데, 증발이 잘 되지 않아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안경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리콘 오일의 가격이 싼지는 알 수 없다.
- ③ 원시는 빛을 한곳에 모아 주어야 하므로 ㉡과 같이 오일을 넣어 볼록 렌즈로 조절해야 한다. ㉠은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만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근시일 때 렌즈의 오일을 빼서 오목 렌즈로 만드는 과정이다.
- ④ 대상이 흔들리게 보이는 것은 난시에 대한 설명이다. ㉡은 빛을 한곳에 모아 원시를 교정할 때 사용되는 볼록 렌즈이다.

- 8 <보기>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함을 설명한 내용이다. 적정 기술이 빈곤층을 돕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아리 냉장고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도수 조절 안경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살피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물건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 방법이다.
- ② 향아리 냉장고나 도수 조절 안경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하는 것은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한 독서 방법이다.
- ④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향아리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찾아보는 것은 과학 기술의 한계를 생각해 보는 독서 방법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피는 것은 능동적인 독서 태도로서 바람직하다.
- ⑤ 도수 조절 안경을 보급함으로써 부족했던 검안사가 더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 중 과학 기술이 사회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한 독서 방법이다.

대단한 평가

168~179쪽

1 ⑤ 2 ① 3 ③ 4 ③ 5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로봇이 인간 되기를 지향하며 발전해 가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6 ① 7 ⑤ 8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직접 얻는 농민들의 정직한 삶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9 ③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② 19 ② 20 ④ 21 ② 22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와 각 동네에 깊숙히 파고들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3 ⑤ 24 ③ 25 ② 26 ④ 27 ④ 28 제한된 서식지에서 같은 먹잇감을 두고 같은 종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9 ⑤ 30 ④ 31 ⑤ 32 ④ 33 기온이 높아 음식들이 쉽게 상하기 때문이다. 전기 시설이 열악하여 전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4 ④ 35 ① 36 ⑤

- 1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든 사람이며, 피노키오의 곁에서 피노키오를 받아들이는 타자이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인공 생명과 로봇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읽고자 제안하고 있다. 피노키오의 교훈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은 아니다.
- ② (다)에서 로봇의 진화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은 있지만, 로봇이 인간이 되기 위해 윤리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 ③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인공 생명 고유의 욕망이 아니라 로봇 공학의 특징이다. 또한, (마)처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 ④ 피노키오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인공 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처럼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공 생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거나, 그 이유가 도덕성 때문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2 글쓴이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타자가 되는 상황에서 제페토가 그랬듯 인간도 로봇의 잘못과 실수를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로봇을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로봇에게 인권 또는 로봇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로봇을 인간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라면, 로봇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도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 ③ 이 글에서는 새로운 타자인 로봇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기>에서 처벌은 행위자의 특성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로봇에게 책임과 처벌을 논하려면 로

봇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 ④ 이 글의 글쓴이는 로봇이 우리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외에, 우리도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따라서 로봇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에 대한 책무임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로봇에게 행하는 일에 대한 책무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 ⑤ 이 글에서 인용한 피노키오는 자유를 선망하는 존재이다. <보기>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행위자에게서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처벌이라고 하였다.

- 3** <보기>는 글쓴이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글쓴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때가 되면 로봇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것이므로 많은 사람이 로봇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인간과 로봇이 대면하는 일이 적은 만큼 낯선 문제라는 뜻이다.

오답 풀이

- ①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다루었지만, 어떤 인간을 지향하는지는 본문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추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② 피노키오가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결말에서, 인간으로서 ‘착한’ 것이 과연 피노키오의 관점에서도 ‘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다.
- ④ 피노키오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 제페토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도 인간이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듯이 로봇도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 ⑤ 인간 사회에는 이미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고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을 타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로봇이 사회에서 또 하나의 악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글쓴이에게 질문할 수 있다.

- 4** (다)에 따르면, ㉗에는 인간과 점점 닮아 가는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권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당된다. 그리고 (바)에 따르면, ㉕에는 인간과 다른 별개의 존재로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당된다. 로봇의 봉사 수준에 대한 논의는 로봇의 인권이나 로봇권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둘 다 로봇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 ② ㉗는 로봇이 인간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이 열

마나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에 해당하는 인권은 어디까지 부여해야 할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 ④ ㉕는 로봇이 인간과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로봇만의 특성을 밝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물의 동물권을 다루듯 로봇의 로봇권을 다루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⑤ ㉕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 구분되는 다른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타자인 로봇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추가될 것이다.

- 5** 《피노키오의 모험》에 담긴 내용이 인공 생명의 미래를 유한하다고 본 것은,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로봇이 인간이 되기를 지향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노키오가 겪는 경험과 변화는 인공 생명이 거쳐 갈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 6** ㉓는 ‘줄에 매달린 나무 인형’이라는 뜻과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㉖는 지능은 있지만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인공 생명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② 피노키오를 놀림거리로 삼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지능적인 외계인, 즉 새로운 인공 생명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낯선 타자로서 거부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 ③ 꼭두각시는 인형극에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피노키오가 인간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지능적인 외계인’이라는 말에 인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는 않다.
- ④ 꼭두각시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피노키오는 다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자기 뜻대로 돌아다닐 때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인 꼭두각시였으므로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 지능적인 외계인은 인간과 대등하게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이들을 타자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한다. 현재 인공 생명이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아니다.

- 7** 고호는 수정하던 유화를 친구의 작업실에 가져가서 의견을 들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농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은 ‘더럽고, 천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 ② 마지막 문단에서 고호는 물감이 섞일까 봐 유화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작은 붓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③ (나)를 보면 포르티에와 뒤랑 뤼엘은 고흐의 그림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을 듣고자 했다.

- ④ (다)의 첫 문장에서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소품들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 8** 고흐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직접 얻는 농민의 정직한 삶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농민을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효용을 주고자 하였다.

- 9** <감자 먹는 사람들>은 농촌 생활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 그림이므로, 감자의 김이 느껴진다면 실제로 감자에서 김이 나기 때문이지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일부러 넣은 효과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고흐는 접시를 잡은 바로 그 손을 통해 농민들의 정직한 육체 노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가)에서 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도시인들이 농민의 삶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했다.
- ④ (나)에서 고흐는 농민을 그리려면 스스로 농민이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다.
- ⑤ (가)에서 고흐는 농민들이 피죄죄한 옷을 입은 것이 그들 본연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농민의 옷을 통해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에서 고흐는 포르티에와 뒤랑 뤼엘에게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도 혹평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혹평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들의 평가를 받고자 하고, 또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예술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고흐가 자신의 예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농부가 작업복을 입은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도시의 신사 흉내를 내며 외투를 꺼내 입은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 ② 시골 처녀가 본질에 가까운 모습일 때는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본질을 숨기고 도시 숙녀처럼 꾸미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 ③ 지금의 화가들에게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밀레와 드 그루처럼 자신의 예술관을 끝까지 관철하는 화가들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존경한다.

- ④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에서는 농촌의 모습 그대로 거름 냄새가 나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예쁘게 다듬어서 그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11** <보기>의 시는 유명한 시인과 작가들에게 가격을 매겨 놓은 것으로, 예술 작품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과 그 가치가 낮은 것을 냉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글쓴이는 밀레와 드 그루 등이 혹평 속에서도 깨끗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아직 평단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고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화가들이 있으니 안락한 삶을 원하지는 않으며, 물질적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였다.
- ② <보기>의 화자는 훌륭한 작가들에게 가격을 매겨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그 가치가 낮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에서 고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예술에 대한 자기 생각을 꺾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④ <보기>의 화자는 훌륭한 작가들이 저평가되는 현실을 비판한 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12** 농민들은 이미 정직한 삶의 본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존재이다. 고흐는 예술을 통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농민들은 이미 정직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교양이 풍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농민들이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 ② 농민들이 교양이나 예술을 갖추면 도시인들을 동경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았다.
- ③ 교양을 쌓는 데 건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④ 고흐는 농민들이 이미 삶의 진실에 접근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삶의 진실에 더 깊이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3** 각 방의 입구가 중앙의 초소를 향해 있는 숙소는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를 활용한 숙소이다. 숙소 출입 여부가 중앙 초소에서 모두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초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수감자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 감시 효과를 내면화한다. 감시당하고 있음을 모르면 감시 효과가 발동하지 않는다.
- ② 감시 권력은 수감자가 감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발동되며 끔

임없이 갱신되므로 권력의 효과는 지속된다.

- ③ 감시자의 성격은 감시 효과와 무관하다.
- ④ 감시자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는 감시의 효과와 무관하다.

14 글쓴이는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가 사회가 시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글쓴이는 설계자의 의도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 구조가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감시는 범죄를 막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게 하여 다시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등의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글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점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다.
- ② 일망 감시 구조가 현대의 일상에 다양하게 적용된다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이를 지적할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피감시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파악하고, 피감시자의 능동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점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다.
- ⑤ 감옥은 감시를 위해 지은 건축물이므로 피감시자를 통제할 수 있지만, 정치는 열린 사회와 다양한 욕망을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옥을 바로 정치에 대응시키기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15 <보기>에서는 패놉티콘이 존재하더라도 시놉티콘을 통해 시민도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이 권력의 감시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시놉티콘은 권력이 시민의 감시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패놉티콘과 시놉티콘은 둘 다 피감시자가 감시 권력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 ③ 패놉티콘은 감시와 피감시자간의 소통을 단절함으로써 피감시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서 시민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의 목적은 권력의 횡포를 막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시놉티콘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감시자-피감시자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봄-보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
- ⑤ 패놉티콘이 권력이 시민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면, 시놉티콘은 시민도 권력을 감시한다는 것이므로 쌍방향적 감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16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함으로써 수감자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에게 항상 노출되므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권력은 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 ②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으므로 감시자는 자신의 상황을 숨길 수 있다.
- ④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중앙 탑에 있는 한 명의 감시자로 여러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 ⑤ (나)에 따르면 어떤 동기로 이용하느냐와 무관하게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같은 효과를 낸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17 감시 권력에 스스로 예측화되는 경우는 본인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 때 발생한다. 따라서 시시 티브이(CCTV)가 설치된 것을 알지 못한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모니터링 요원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점원들은 감시를 내면화해서 지속적으로 조심하게 될 것이다.
- ③ 개인의 컴퓨터 화면이 교사에게 전송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감시를 의식하여 과제 외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④ 관리자만이 모든 직원을 파악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관리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 ⑤ 개인의 업무 메일 및 메시지를 관리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은 업무 메일이나 메시지를 사용할 때마다 관리자를 의식하며 감시를 내면화하게 될 것이다.

18 ①에는 김상헌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최명길의 것으로, 그는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맞선다면 포위 때문에 성안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화친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헌은 화친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내실을 도모하고 결국 화친의 길을 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㉔: (나)에서 김상헌은 적이 이미 우리나라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데 겨우 화친만 맺을 리가 없고, 글을 보내온 것은 화친을 핑계로 항복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 ③ ㉔: (다)에서 최명길은 포위당한 상태로 계속 싸우면 성안이 피해를져 성안이 피해를져 더 이상의 내실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면 설령 그 이후에 기회가 오더라도 싸울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화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④ ㉔: (라)에서 김상현은 치욕스럽게 살아남는 것은 죽음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가 싸우자고 주장한다.
- ⑤ ㉕: (마)에서 최명길은 죽음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19 ㉑ 최명길은 ‘예판의 말은 옳으나~’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입을 열지만, 그 이후에 ‘해야람이 알아옵시다’와 같이 상대의 생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 ㉒ 최명길은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㉓ 김상현은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리거나 최명길의 말을 끊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매우 강경함을 강조하고 있다.

- 20 (다)에서 편의점 내의 시시 티브이(CCTV)는 도난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편의점 고객의 연령대와 성별을 기록하여 본사로 보냄으로써 정보를 분석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라)의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 (다)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물품을 배송하고, 고객의 정보를 전해 받아 영업 전략으로 활용한다.
- ③ (나)에서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고, 도시의 치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1 이 글에서 온라인 주문 배송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가)에서 배송 시스템은 하루에 1~2번씩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나)를 보면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 거울로 계산대 직원 이 매장 내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다)를 보면 손님이 계산할 때 점원은 연령대와 성별을 계산기에 붙어 있는 버튼에 입력한다고 하였다.
- ④ (다)를 보면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고르는지 기록한다고 하였다.
- ⑤ (나)와 (라)를 보면 깔끔하고 환한 공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심아에도 안심하고 편의점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2 창고 없이도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본사가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맞춤형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3 편의점 주인과 소비자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편의점은 시시 티브이(CCTV) 등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오답 풀이

- ① 편의점은 소비자에게 심야 영업, 물품 등을 제공한다.
- ② 소비자는 편의점에 자신의 구매 습관이나 상품 선호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③ 소비자가 편의점에 제공하는 정보는 편의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근거가 된다.
- ④ 끝손이는 편의점이 소비자의 습관을 알뜰히 빚어낸다고 봄으로써, 실상 편의점이 제공하는 물품에 맞게 소비자의 욕망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24 <보기>의 3)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과자 및 간식류이므로, 본사는 간식류를 가장 많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1)을 보면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연령은 20대~30대다.
- ② <보기>의 2)를 보면 퇴근 후 일과를 마치고 편의점에 방문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편의점의 심야 영업이 도시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기>의 3)에서 교통카드 충전 비율이 16.2%가 되는데, 이처럼 무형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에서 편의점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보기>의 2), 3)을 보면 점심시간에 방문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고, 간편식이나 즉석 조리 식품 등 식사가 될 만한 것들이 구매 품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은 점심이 될 만한 품목을 늘리는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25 나. ‘다양성’의 근거가 되는 갈라파고스 핀치의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 다. (라)에서 ‘공생’이라는 주요 개념을 ‘지의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오답 풀이

- ㄱ. 변증법은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비판 또는 반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구조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다윈의 진화론의 문제점을 공생 진화론이 반박·보완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내용의 이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변증법적 서술이 드러나지 않는다.

- ㄴ. 다윈의 진화론과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의 우열을 논하지 않았다.

- 26 다윈은 하나의 생물 종 안에서 ‘변이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졌고, 핀치가 13종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생물

종이 어떻게 공생 관계를 통해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살아남은 개체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②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 ③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진화는 단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가므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 ⑤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와, 긴 주삿바늘 같은 부리는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 다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7 <보기>의 자료에서 ‘공존’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가는 나무들을 사례로 들었고, ‘공생’은 말미잘과 흰동가리가 서로 이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④의 공존이 ‘무한한 자연 자원’을 나누어 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빛’은 무한하지만, 숲속으로 들어오는 빛은 다른 나무들에 가려지기도 하므로 무한하게 주어지는 자원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공존’하는 생명체들이라도 그들이 모두 긴밀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공존’, ‘공생’은 모두 생물 종의 형질이 다르고, 필요한 자원이나 그 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
- ③ 핀치는 제한된 서식지에서 서로 다른 먹잇감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지만, 핀치끼리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공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의류의 경우 조류와 균류는 함께 살아가는 데다 둘이 긴밀하게 이익을 교환하기 때문에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라)에서 다윈은 핀치가 먹잇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지니도록 진화한 것을 보고, 핀치가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핀치가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할 경우의 가설을 참고하여 답을 서술할 수 있다.

29 ‘추가로 제시할 질문’은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 가운데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비판할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다. ⑤의 경우 자연 선택의 다양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인간이 생

물 종을 의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는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수많은 장소 가운데 굳이 갈라파고스를 선택한 이유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보충하는 의미에서 질문할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생태계에 경쟁보다는 공존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경쟁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 ③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으므로, 무성 생식을 하는 생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④ (가)에서 초기의 작은 변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에 맞는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례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30 지의류는 조류가 균류에게 포도당을 주고, 균류가 조류에게 수증기를 주고 포자 방출을 돕는 관계인데 이 둘은 양측에게 모두 필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소똥은 소에게 필요한 자원이 아니고, 악어의 이빨에 낀 음식 찌꺼기 역시 악어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니므로 ④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에 낀 음식을 먹음으로써 악어의 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악어에게도 도움을 준다.
- ② 쇠똥구리가 없다고 소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거나, 악어새가 없다고 악어가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의류는 균류나 조류 어느 한쪽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 ③, ⑤ ㉠, ㉡, ㉢은 모두 다른 생물 종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동일한 종이 변이를 일으킨 사례가 아니다.

31 슈마허는 간디의 영향을 받아 ‘중간 기술’을 강조했다. ‘중간 기술’이 선진국의 기술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열등’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기술보다 많은 제약 속에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등’하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름도 ‘적정 기술’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 ① 슈마허는 간디의 영향을 받았고, 간디가 그랬듯이 슈마허 역시 현지의 재료, 현지 노동력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 ② 간디는 지역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지역 중심의 작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윤 증대를 위한 대량 생산 기술, 소수에게 이윤이 독점되는 기술에는 반대하였다.
- ③ ‘중간 기술’, ‘적정 기술’은 상위 10%를 겨냥한 기술이 아니라 90%를 위한, 특히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빈곤층을 위한 기술이다.
- ④ ‘적정 기술’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기술’, ‘중간 기술’의



뜻을 이어받아 현지의 재료와 기술력, 노동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지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술이다.

- 32** ㉔는 젖은 천, ㉕는 물, ㉖는 모래이다. 항아리 냉장고는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고 모래가 건조해지면 다시 물을 뿌려 주어야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 모래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모래가 건조하면 냉장고 온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음식 위에 젖은 천을 덮는 것이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 역시 물이 증발하며 주위의 열을 빼앗는 원리와 관련이 있다.
- ② (나)에 따르면 물은 분자 간 결합을 끊을 때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 ③ 물이 기체가 되어 증발하려면 물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은 증발할 때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 가게 되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 ⑤ 물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지속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

- 33** 첫째, 아프리카 지역은 온도가 높아 음식물이 쉽게 상하여 상한 음식을 먹고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아프리카 지역은 냉장고를 사용하기에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항아리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

- 34** (다)에는 스스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사용자 스스로 초점을 바꿀 수 있게 하려고 렌즈에 액체를 주입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답 풀이

- ① 렌즈의 두께를 바꿀 수 있어야 원시, 근시 모두가 안경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두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해결책은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인 액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다.
- ② 비용을 낮추는 것은 적정 기술로서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아직 비싼 비용의 해결책은 찾고 있는 중이다.
- ③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쉽게 증발하지 않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한 것이다.
- ⑤ 원시와 근시는 사용하는 렌즈의 두께가 달라서 렌즈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실리콘 오일이 잘 증발하지 않는다는 성질은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결 방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35** <보기>의 큐 드럼은 어린이도 물을 길어 올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기구이면서, 물의 공급을 도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는 기술이다. 기존의 방식보다 5배 이상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토착 기술보다 우수하고, 어린이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큐 드럼은 현지의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그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적정 기술도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적정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④ 물을 운반하는 용기이므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④에 알맞은 기술의 사례로는 시력에 따라 렌즈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도수 조절 안경을 들 수 있다.
- ⑤ 어린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쉽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많은 양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 36** <보기>의 플레이 펌프는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 아래에서 아이들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기 힘들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기술에 해당한다. 또, 가격이 비싼 데다 기존의 핸드 펌프와 비교했을 때 플레이 펌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까지 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삶을 개선한다는 적정 기술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처럼 현지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적정 기술이 오히려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하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플레이 펌프는 핸드 펌프보다 기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현지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플레이 펌프는 핸드 펌프에 비해 큰 비용이 든다. 아이들을 주 사용층으로 두었지만, 아이들을 노동에 참여시키게 된 것으로 본래의 의도와는 멀어졌다. 따라서 교육 등의 가치 창출을 통해 미래의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③ 플레이 펌프나 핸드 펌프 모두 사용자가 특정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플레이 펌프가 사용하기 힘든 것은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V. 다양한 배경의 글 읽기

01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내용 확인하기

183~185쪽

- 1 ⑤ 2 ③ 3 ② 4 ④ 5 ⑤ 6 ㉠ 공정하고 고상하다
㉡ 사사롭고 저속하다 7 ② 8 ③

- 이 글의 글쓴이는 자기 생각을 직접 표출하거나 비유를 사용하여 드러내었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책 바보’는 책을 소장하려고만 들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비록 만 권의 책을 쌓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문장과 학문에 뜻이 없다면”에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문장과 학문에 뜻을 두고 책을 소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사소한 물건의 노비’는 문장과 학문을 익힌다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혼자 구경하거나 소장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 ‘오이 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은 책을 읽을 때 관련 서적을 함께 읽어 가며 독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독서를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부분을 먼저 숙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만한 근거는 없다.
- 글쓴이는 책을 팔 때 장서인 찍은 것을 없애면서 무언가 잃은 양 한탄스러워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책의 소유주가 바뀔 때 자신의 흔적을 없애며 아쉬워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 알려 주기 위해서라며, 이를 공정하고 고상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책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며 이를 사사롭고 저속하다고 여긴다.
- 글쓴이는 경제적 윤택함과 지적 풍요로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글쓴이는 요즘 어린이들이 글공부할 때 많이 하려 욕심을 내고 빨리 읽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어린이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칠

때 속독을 시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187~189쪽

1 ④ **서술형은 이렇게** 책을 소장할 때 오직 내 것이길 고집하고 다른 이와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2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만 권의 책을 소장하는 경우 / 책을 좋아하는 자손을 위해 소장한 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3 ③ 4 ② 5 ③ 6 ① 7 ① 8 ① 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관련 서적 [2단계] 주제, 심층적 [3단계]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으로 독서를 하면,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글에서 글쓴이가 비판하는 인물은 책이 있으면서 남들과 나누지 않고 어떻게든 소장하려고만 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책 바보’는 책을 통한 지적 교류보다는 소장에 더 큰 의의를 두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채 만 권의 책을 소장해도 좋고”라고 하였고, 뒷부분에서는 “자손이 책을 좋아한다면야 당연히 내가 가진 책을 그대로 물려주겠지만”이라고 언급하며 책 소장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 (나)는 “장차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자문자답의 형식은 글쓴이가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을 때 내용과 관련한 서적을 모두 참고하며 읽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보였을 독서 방식 혹은 태도는,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기 위해 연관 도서를 모두 참고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 (다)에서 장서인을 찍는 행위는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를 알려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는 장서인을 잘 이용하면 책의 전파 경로를 고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서인을 없애면 책의 전파 과정이 지닌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글쓴이는 ㉠에서 욕심을 부리며 책을 읽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기사회생(起死回生):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7 글쓴이는 단지 소유하기 위해 책을 소장하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 ~ (라)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 8 (가)~(라)의 글쓴이(A)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책을 나누는 행위를 권장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독서 방식과 비판하는 독서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마)의 글쓴이(B)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 상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A, B 모두 책을 읽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의 독서 방법은 관련 서적을 모두 참고하며 읽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주제 통합적 읽기와 유사하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은 현재 읽고 있는 글과 관련된 모든 도서를 참고하는 방식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독서 방식을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독서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관련된 책’을 찾아 함께 읽는다는 독서 방법을 언급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제 통합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대 효과를 서술한 경우	5점
궁극적으로 ‘주제 통합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대 효과만 서술한 경우	3점
‘관련된 책’을 찾아 함께 읽는다는 의미만 포함하여, ㉠이 비유하는 독서 방법만을 서술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과 같은 독서 방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따라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이 비유하는 실제 독서 태도를 유추하여 서술해야 한다.

0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내용 확인하기

191~195쪽

1 ③ 2 ⑤ 3 ③ 4 ③ 5 장관직을 얻게 된 것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⑤ 11 ① 12 ④ 13 아카키
아카키예비치 14 ① 15 ②

-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관료제가 정착된 사회로 인간 관계에서 인정보다는 직급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관리들이 상급자에게 아첨하기 위해 돈을 쓰느라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위해 결국 돈을 모금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새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긴 후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기는 하지만 고위층 인사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빼앗긴 외투를 되찾기 위해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므로,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은 앞서 이야기한 관료들의 문제 행동이 러시아 관료 사회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행동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상관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하여, 조금이라도 지위가 높아지면 여지없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 관료 사회의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 “그도 마음은 선량하여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그는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다.
-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방문을, 친구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위층 인사가 먼저 상대를 관찰하여 그 의도를 파악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8 고위층 인사는 “절차도 모르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문서도 제출 및 ‘계장 → 부장 → 비서 → 고위급 인사’의 순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질책하고 있다.
- 9 ‘귀관’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높여 이르거나 듣는 이가 관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표현이다.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이 글에서 ‘귀관’이라는 호칭은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이미 아랫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선택한 호칭이거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호칭이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존중해서 선택한 호칭이라고 볼 수 없다.
- 10 고위층 인사는 언성을 높이는 준언어적 표현과 발을 구르는 비언어적 표현을 섞어 가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무섭게 질책하고 있다.
- 11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에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등 당혹감을 온몸으로 드러낸다.
- 12 의사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진료하기 위해 온 시점은 이미 후두염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다. 또한 의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 최소한의 처방(찜질)이라도 시행했으므로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아서 후두염이 생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소극적이고 나약하여 관료 사회의 권위적인 모습에 피해를 입는 소시민의 전형이다.
- 14 ‘유령’은 글쓴이가 이제껏 이어 오던 사실주의적 성격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등장시킨 장치이다. 이 유령은 맥락상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유령이며, 그는 유령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야 살아 있을 때 하지 못했던 분풀이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유령의 복수는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고 할 수 있다.
- 15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유령이 행인들의 외투를 빼앗는 장면은 그가 강도에게 강탈당한 외투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준다.

1 ① 2 ① 3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방한 용품이자 물질적·정신적 자산이며, 삶의 의미이다. 4 ④ 5 ① 서술형은 이렇게 새 외투를 잃은 충격을 이겨 내지 못해, 난생처음으로 관청에 출근하지 못했다. 6 관료들이 관등(지위)에 따라 권위적·과시적 태도를 보이는 일이 만연하였다. 7 ③ 서술형은 이렇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비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 관료 사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8 ① 9 ③ 10 ③ 11 ⑤ 서술형은 이렇게 고위층 인사는 자신에게 ‘공포감’을 느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와 친구의 모습에 ‘만족’하여 자신의 힘에 ‘도취’된 모습을 보인다. 12 ⑤ 13 ②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외투, 꾸지람(질책), 죽음 [2단계] 형편, 외투, 하층민(소시민), 관료 사회 [3단계]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돈을 가져 새 외투를 사는 장면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 잃어버린 외투를 되찾기 위해 장관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러시아 관료 사회의 권위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 1 이 글의 주요 등장인물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와 고위층 인사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러시아 사회를 구성하던 두 축, 즉 가난한 소시민과 러시아 관료 집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가난한 소시민은 관료들에게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며, 관료로 대표되는 인물은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있고 권위 의식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부패한 관료들의 폐해가 극심했던 당시 러시아 사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 2 칸막이로 된 자신의 방을 만들어 ‘집무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어떤 9급’의 행동이다.
- 3 이 글의 배경인 페테르부르크의 겨울 추위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외투는 기본적으로 방한 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외투를 잃어버린 후에 보이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외투는 그의 물질적·정신적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의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보기>의 내용에 따라 이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며 읽는다면, 관리들이 돈을 모아 국장의 초상화를 주문하는 모습에서는 당시 러시아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 부패와 아침 문화를 떠올릴 수 있다.
- 5 이 글에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평소에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인물은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말라고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조언을 건네는 동료이다.



- 6 조그만 부서를 책임지면서도 굳이 ‘집무실’을 만들고 안내원을 세운, ‘어떤 9급’이 보이는 모습은, 직위를 과시하는 태도가 러시아 관료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준다.
- 7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낡은 제복에 주목한다. 이는 인물의 외모와 옷차림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직접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 그의 방문 의도를 미리 알아채지는 못하였다.
- 8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고위층 인사를 직접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불신은 자신의 외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일 뿐, 러시아 관료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9 ㉠은 앞서 제시된 고위층 인사의 행동에 대해 그의 말이 거짓임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말이다. 즉, ㉠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부분이다.
- 10 이 글의 서술자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와 고위층 인사 등 작중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이며, 소설에 자주 개입하기는 하지만 소설 속 인물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소설 내용에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작품 밖 전지적 서술자’로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 어디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소설에 개입하기는 하지만 작품 속 등장인물로 볼 수는 없다.
- ④ 서술자가 전달하는 사건은 고위층 인사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 사이에 벌어진 일뿐이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후두염은 고위층 인사와의 일이 끝난 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동시에 벌어진 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장면의 전환을 직접 시도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 11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질책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모습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도취하여 있을 때, 친구의 눈에서 읽은 공포감에 다시 한 번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도취의 정도를 강화하게 되므로, 둘은 비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 12 고위층 인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것과 외투를 되찾을 수 없게 된 상실감, 거리의 바람, 눈보라, 입을 벌린 자세, 후두염 등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심한 고열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고위층 인사의 친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호된 질책을 당할 때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고위층 인사의 친구가 배신을 하여 심한 고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3 병을 앓게 된 주인공은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되어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삶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는 장면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이 글에서 하층민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가난과 무기력함은 어렵게 이루어지는 ‘외투’의 구매와 강탈당한 외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에게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고위층 인사의 모습은 주된 풍자의 대상이 된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돈을 아껴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 장면, 그를 호되게 혼내기만 한 고위층 인사의 모습을 요약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하층민(소시민)의 힘든 삶과 러시아 관료 사회의 권위 의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도출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외투를 겨우 마련하는 장면과 고위층 인사의 권위적 모습을 바탕으로 당시의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경우	5점
특정 장면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판적 요소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3점
특정 장면만 언급하고 그 장면에서 도출할 수 있는 비판적 요소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하층민(소시민)의 삶에 대한 묘사와 당시의 러시아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따라서 두 요소를 적절히 아우르기 위해서는 하층민(소시민)의 삶이 묘사된 부분과 러시아 관료 사회의 모습을 먼저 발췌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장면에서 당시의 러시아 관료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 감점을 피할 수 있다.

03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내용 확인하기

203~206쪽

1 ② 2 ④ 3 민간인 통제 구역이 가장 넓고 그 안에 비무장 지대와 판문점이 위치하며, 판문점은 비무장 지대 안에 위치한다.
4 ⑤ 5 ⑤ 6 ④ 7 ⑤ 8 정보 접근성 9 ④ 10 ④
11 ③

- 1 이 자료에서는 비무장 지대 일대의 경계 및 구역에 관한 설명과 관련 지역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 서술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비무장 지대 일대의 구획이나 분포를 지도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나 추측을 담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2 정전 협정을 통해 설정된 비무장 지대에서는 군대의 주둔이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공동 경비 구역에서도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지도와 설명 내용을 확인하면 민간인 통제 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으며, 이 구역 안에 비무장 지대와 판문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문점 역시 비무장 지대에 속하는 지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 4 이 자료에는 비무장 지대와 관련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조인 이후의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무장 지대 설정 이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다.
- 5 <보기>를 통해 비무장 지대는 정전 협정이나 휴전 협정을 통해 설정되며, 전쟁이 종료되거나 특별한 해제 선언이 있지 않는 한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무장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그 일대가 전쟁 중인 지역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6 이 자료에는 비무장 지대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안내되어 있다. 글쓴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진일보한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다채로운 관광 코스, 독특한 체험 행사’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의 대립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7 ㉠은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비무장 지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의 다른 매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하는 장치로서, 독서 중에 바로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동시에 글의 내용을 빠른 시간에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9 ‘방송’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동영상, ‘비무장 지대 여행’ 페이지에는 여행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10 A에서는 비무장 지대의 자연·생태 자료와 각종 방송 영상, 정부 기록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B의 ‘비무장 지대 커뮤니티’는 비무장 지대를 여행한 후기 등이 실려 있어, 비무장 지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11 (가)에서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비무장 지대의 생태적 가치, 지형적 특성, 비무장 지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역사적 사건 등 평화와 통일의 땅으로서 비무장 지대의 다양한 가치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208~211쪽

1 ② 2 ② 3 ② 서술형은 이렇게 글자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4 ③ 5 ② 6 전쟁은 멈추었지만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7 ① 8 충돌 방지 공간에서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비무장 지대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활력을 의미한다. 9 ③ 10 ⑤ 11 ③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1단계] 생태적, 역사적, 생태, 안보 견학 [2단계] 생태, 역사 [3단계] (가)의 글쓴이는 비무장 지대가 생태적 가치, 지형적 특성, 사회·문화적 관점과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연천이 생태와 안보 견학(역사 공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비무장 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의 내용과 (나)의 지도를 동시에 살펴보면, 접경 지역은 판문점, 비무장 지대, 민간인 통제 구역과 달리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이 아니라, 민간인 통제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접경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 바깥의 지역이다. 그러므로 민간인 통제 구역이 접경 지역까지 아우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가)에서는 특정 지역의 명칭과 그에 따른 경계 및 구역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설정 거리 및 면적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따라서 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은 '지리 정보'가 가장 적절하다.
- 3 (나)는 (가)에서 설명한 특정 지역의 경계 및 구역 등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이다. 따라서 (나)는 (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이해를 돕는 매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비하고 있는 공간은 판문점(공동 경비 구역)이다. 판문점은 비무장 지대에 속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비무장 지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비무장 지대 전체를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 5 (라)는 판문점과 같이 (가)~(다)에서 언급된 지역뿐만 아니라, 비무장 지대와 연관된 지역인 민간인 통제 구역과 접경 지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6 <보기>의 글쓴이는 총성이 멈춘 자리에 '서글픈 평화의 공간'이 탄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총성이 멈추었다는 것은 전쟁이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비무장 지대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글픈 평화'는 전쟁은 멈추었으나 남북이 분단되고만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7 ㉠은 자연환경 보전 위주의 정책에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된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를 아우르는 정책',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정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8 비무장 지대에 대한 인식은 '충돌 방지를 위해 일부러 비워두는 공간'에서 시간과 역사가 형성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돋보이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비무장 지대 일대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 이러한 새로운 모습에서 느껴지는 활력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9 ㉢와 ㉣는 비무장 지대의 상징이자, 분단의 상처가 남아 있는 공간 혹은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무장 지대와 관련해 변화한 시선의 영향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한 지역이기도 하

다. 그러나 ㉢와 ㉣ 자체는 과거의 대립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책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0 '정보 창조자'란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인물이다. ㉤에는 (나)에 언급되지 않은 '열쇠 전망대에서는 서쪽을 바라볼 때 북한의 모습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정보를 요구하는 댓글이다.

②, ④ 정보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언급된 내용이므로, 정보 창조자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 11 (가)의 글쓴이는 비무장 지대가 생태적 가치, 지형적 특성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권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1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가)의 글쓴이는 비무장 지대에 생태적 가치, 지형적 특성, 사회·문화적 관점 등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동시에 비무장 지대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생생히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연천의 특성으로 생태와 안보 견학이 가능한 곳, 특히 열쇠 전망대에서 비무장 지대와 관련된 역사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가)와 (나)의 글쓴이가 비무장 지대의 '생태'와 '역사'에 주목했음을 깨닫고,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 구절을 찾아 서술해야 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가)는 비무장 지대의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언급했고, (나)는 비무장 지대의 생태와 역사 공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두 글쓴이가 비무장 지대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주목했다는 결론을 내려 서술한 경우	5점
두 글쓴이가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주목했다는 결론만 서술한 경우	3점
글쓴이의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발췌하여 서술했지만, 공통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2점

[감점 피하기 tip] 문제에서는 비무장 지대에 관하여 두 글쓴이가 드러내는 공통적 인식을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 인식을 발견하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글에서 찾아 서술해야 한다.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글에서 동시에 사용된 표현에 주목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1 ② 2 ⑤ 3 책을 쌓아 두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 알려 주기 위해 장서인을 찍는다. 4 ④ 5 ③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③ 11 ③ 12 ④ 13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페테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 때문에 '후두염'에 걸려서 '심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14 ③ 15 ③ 16 ③

- 1 자손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손을 위해 서적을 모아 두는 것이 지나친 행동이라고는 하였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책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 및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 책을 나누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책을 읽으며 관련 서적을 모두 참고하는 독서 방식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④ 책의 전달 과정 중에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를 밝히고자 장서인을 찍는 행위는 공정하고 고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 소유의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하며 장서인을 찍는 행위는 사사롭고 저속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어린아이들이 글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고 빨리 읽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폐해'로 보고 있다.

- 2 <보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읽기 문화의 모습 역시 변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도 시대에 따른 읽기 문화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글쓴이는 (마)에서 많이 빠르게 읽으려는 독서 습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속독 및 다독'을 중시하게 되었고 읽기 방식도 묵독이 일반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정 독서 방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③ 음독과 관련한 내용은 (마)에 조금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 (가)의 “책을 쌓아 두고 내 것이라 하지 않아야 공정한 행위이다.”, (라)의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 어찌 공정하고 고상하다 하지 않겠는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오이 덩굴을 뽑아내는 방식’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 관련한 글을 모두 찾아 읽는 방식이다. ④는 <외투>를 읽다가 확인한 러시아 관료 사회의 권위 의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관련 글을 찾아 읽는 것이므로 ㉠과 같은 독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 5 ⑤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장서인을 찍는 태도를 옹호하며, 그들처럼 책의 유통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⑥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글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서인을 찍는 태도를 비판하며,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자신이 소장하던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하는 태도는 사사롭고 저속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6 경찰서장은 법적 서류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데 반해, 고위층 인사가 문제 해결의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판단할 만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7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신분은 하급 관리이고,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은 글 초반에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동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사회적 신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8 (다)에서 고위층 인사는 아랫사람 앞에서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지며,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와 (나)에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는 소심하고 유약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고위층 인사의 졸렬함이 유약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9 표현론적 관점이란 작가의 삶이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보기>에는 <외투>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이와 연관 지어 작품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작가가 러시아 관료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비판 의식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고위층 인사’의 심리 및 태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통해 드러나므로 ⑤의 감상은 적절하지 못하다.

- 10 고위층 인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호되게 질책한다. 이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낮이 나간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고위층 인사는 반성은커녕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11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고위층 인사의 호된 질책에 낮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이라는 의미의 ‘대경실색(大驚失色)’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② 비분강개(悲憤慷慨):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복받침.
 ④ 자포자기(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⑤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12 (가)에서는 “장관은 웬지 모르게 그 같은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졌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여 두 인물이 현재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음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 묘사와 동시에 대화가 제시되면서 고위층 인사의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 대한 질책이 꾸준히 이어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와 같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장면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알린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는 고위층 인사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심리가 모두 서술되고 있다.
 ③ 고위층 인사는 ‘분노’로 대표되는 심리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으며,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당혹’으로 대표되는 심리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경 역시 고위층 인사의 집무실에 국한되어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면의 빈번한 전환과 극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위층 인사의 집무사이지만, 이곳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밀한 묘사를 통한 시대적 상황 제시도 확인할 수 없다.

- 13 결론적으로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죽음(‘최후의 순간’)을 맞게 된다. 죽음의 원인은 ‘심한 고열’이고 심한 고열이 발생한 원인은 ‘후두염’이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후두염에 걸리는 데에는 심리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페테르부르크의 ‘가혹한 날씨’도 원인이 되었다. 즉 ‘가혹한 날씨 → 후두염 → 심한 고열 → 최후의 순간’의 인과 관계가 성립

한다. 답으로 ‘후두염’에 걸린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심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가혹한 날씨’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다는 서술도 가능하다.

- 14 (가)에는 판문점, 비무장 지대, 민간인 통제 구역, 접경 지역의 지리적 정보, 거리나 면적과 관련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 15 (나)에는 연천에 안보 견학을 다녀와서 쓴 여행 후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연천을 방문하기 위해 어떠한 교통수단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16 (가)의 ‘비무장 지대’ 관련 내용에 ‘비무장 지대’를 포함하여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는 민간인 출입이 어렵다는 정보가 있다. 따라서 사람의 왕래가 최소화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비무장 지대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무장 지대 내 집단 취락 지역 설정을 위한 법이다. 따라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법이 비무장 지대만의 독특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판문점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추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집단 취락이 가능한 지역이 설정되었고, 사람들이 지속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방문은 해당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추진할 만큼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⑤ 민간인 출입 허가증 발급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 사람들의 관리가 있었다면 비무장 지대의 생태가 지금처럼 독특한 생태를 보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